

인공지능(AI), 인류 생존에 위협 줄 수 있다!

허핑턴포스트, 세계적 석학/경영자들 인공지능개발 위험성 경고 보도

인공지능(AI)을 가진 로봇의 반란으로 몰락해버린 인류. 로봇이 등장하고, 암울한 미래를 그리 는 디스토피아(Dystopia)적인 문화 콘텐츠는 허리우드 영화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로봇은 자아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갖고 자신들의 창조자인 인류 에게 반기를 든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생각하는 기계들은 인류를 지배한다. 심지어 인간들은 기계의 생체전지로 전락해버리고, 그들에게 사육당하기까지 한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도 인류는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에게 핵 공격을 받아 존폐의 위기를 맞는다. "어벤전스 2" 역시 '로봇의 원죄'를 스스로 깨버린 인공지능 로봇, 울트론이 인간과 생존 대결을 그리고 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등장, 그리고 인공지능의 반란이다.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다름없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 엘론 머스크가 지난 해 말 열렸던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다. 그동안 엘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공지능 이 핵무기보다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인공지능의 발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빌 게이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고문도 엘론 머스크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빌 게이츠는 올 초 한 행사 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물리 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역시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 고했다(Artificial Intelligence Warning Says Research Must Avoid Apocalyptic 'Pitfalls').

올해 초부터, 스티븐 호킹을 포함한 여러 과학자와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인류의 종말을 야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수많은 최고 경영자와 학자 들이 동시에 이름을 올린 이 '오픈 레터(Research Priorities for Robust and Beneficial Artificial Intelligence: an



IBM 슈퍼 컴퓨터 왓슨이 사람들과 퀴즈 대결을 하고 있다

현재 수행 직업의 40%까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될 수 있어 인간의 무지 슈퍼지능 생성으로 인간이 관리능력 잃을 수도

Open Letter)'는 첨단 인공지 능 연구가 오로지 긍정적인 목 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연구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레터는 "인공지능 체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공지능이란 분야에 크나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 된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 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사례는 현실에서도 종종 있었다. 1997년 딥 블루(체스 컴퓨터)는 체스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2011년 왓슨(IBM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은 퀴즈쇼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챔피언에 올랐다.

딥 블루와 왓슨의 승리 비결 은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빠른 연산 처리 속도에 있다. 주어진 지식을 인간보다 많이 저장 하고 미리 프로그래밍이 된 대

로 동작했을 뿐, 이 지식을 다 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자율 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결국,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판단해 정답을 추론한 것이 아니 라 사람이 시킨 대로 동작한 것이다. 딥 블루가 가진 지식 은 미리 입력된 방대한 양의 체스 기보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딥 블루는 체스밖에 두 지 못한다. 딥 블루가 장애물 을 스스로 인식하고 체스판까 지의 경로를 설정해 팔을 움직여 말을 두 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다.

그러나 미래학자나 SF 소설가와 과학자들 은 자체적으로 인 지가 가능한 인공지 능이 가능해진다는 가정 아래,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이 겪을 변 화를 꾸준히 추측해 왔다. 대체로 별로 긍정적인 예고는 아니 었다.

그런데 이젠 상상뿐만이 아닌 인공지능 시대의 실현이 매우 가까운 시점에 와있다. 물론 인간을 모방한 인공지능 을 개발했다고 시끄럽게 떠들 던 업체 대부분이 여전히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나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연구자들과 업계의 투자자들은 종말을 부 르짖는 단계는 아니어도 본격 적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삶 재단에 발표된 이 번 경고문은 인공지능이 드디어 그 잠재력에 거의 도달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이론적 체계가 공유되고 엄청난 데이터와 처리 능력이 더해지면서 음성인식, 이미지 분별, 무인 자동차, 기계 번역기, 다리 달린 로봇, 질문-응답 기 능 같은 다양한 과제가 성공적 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인공지능 연구에 쏟아지고 있다. 레터는 그 에 대해 아래처럼 썼다.

"연구실 실험에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주 작은 향상이 큰 재정적 가치를 뜻하는 선순환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더 많은 투자를 촉구한다."

"인공 지능 연구가 현재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인류에 미칠 영향도 계속 증가할 것이 라는 의견은 거의 일치하고 있 다. 인류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이 인간 지능에서 초래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통해 얻을 혜택이 대단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 다."

경고문은 인공지능의 잠재 적 이득이 엄청나다고("질병과 빈곤의 완전 퇴치가 불가능하 지 않다") 시인하면서도 그에 관련된 '실수로 크나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자연에서 배우는 아름다운 비행!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날씨가 제법 선선한 즈음, 새벽기도가 끝난 후 집에서 가까운 존스비치로 산책을 나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러기는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거리가 대략 지구 한 바퀴인 4만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가기 위해 기러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 V자 대형을 그립니다. 조류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여기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V자 대형을 그리며 맨 앞부분에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힘차게 펄럭이는 날개 양력으로 인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그 힘이 71% 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29%의 힘만 갖고도 함께 갈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맨 앞의 기러기는 힘센 기러기들이 자리 잡고 뒤로 갈수록 차츰차츰 약한 기러기들이 자리를 잡다가 맨 마지막에는 병든 기러기, 나이 많은 기러기, 어린 기러기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맨 앞의 기러기는 힘도 필요하지만 바람, 속도, 위험요소 등등을 파악하여 방향도 잡습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도 깊은 영성과 경륜이 있는 성도들이 맨 앞에서 날아가야 합니다. 괜히 내대는 것 같고 혹은 앞에 나서는 것이 싫어서 자주 뒤로만 가려고 한다면 누가 맨 앞에서 공동체를 천국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지키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뒤로가 아니라, "나 하나만큼은" 앞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전체를 인도해야할 그만큼의 책임과 배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맨 앞에 갈 자격도, 실력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공동체의 자정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러기들은 날면서 끊임없이 "꺼억꺼억"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앞에 날고 있는 리더와 그 그룹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라고 합니다. 교회나 공동체를 인도해 나가기 위해 앞장서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해서는 안됩니다. 시샘하거나 질투해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나는 못하지만 내 대신 맨 앞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힘있게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나대신 수고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내야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러기들은 날아가면서 그 자리가 시시때때로 바뀐다고 합니다. 맨 앞의 기러기들이 어떻게 계속 4만km를 맨 앞에서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가다가 이제 힘이 딸리고 지치면, 그동안 힘을 축적했던 그 다음 대열의 기러기들이 다시 앞으로 나오고, 지친 기러기들은 그 뒤로 위치를 바꿉니다. 그동안 다시 힘을 축적하여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참 과학적인 비행입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에이! 저지 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풀썩!" 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오히려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까지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어! 잠깐 뒤로 와서 쉬어! 부족하지만 당신처럼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 내가 그 봉사 자리 한번 감당해 볼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참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대열에서 이탈되는 지친 기러기는 동료 중 두세 마리가 남아서 곁을 지켜줍니다. 한 마리도 이탈 없이 다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나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 주변도 살피고 속도도 늦춰줄 줄 아는 여유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한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 놓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한 여행객이 아이들에게 유머러스한 제안을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에 맛있는 사탕, 과자, 초콜릿, 코카콜라를 넣어 달아 놓을 테니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 그 봉지를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니 이제 땅하면 달려가라." 땅하자 여행객은 놀랐습니다. 기대하기는 어린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모두다 뛰기 시작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한명도 뛰어가지 않고 다같이 얘기하며 깔깔대고 웃으며 다같이 그 나무에 달린 봉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여행객이 놀라서 묻습니다. "왜 먼저 뛰어가지 않니? 다 네 것이 될 텐데."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지면 제 친구들은 못가지기에 불행하게 될텐데요." 나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타고난 게 그러니 내가 어찌하냐고, 그런 거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그러다가 나도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냐고, 나라도 행복해져야 하지 않냐고, 우리는 이런 세상과 공동체에 너무나도 익숙한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아프리카의 한 어린이들의 이야기인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뜻의 우븐트"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뒤쳐지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다가 뒤돌아보며 잠시 기다려 주고 함께 가는 배려하는 공동체, 우븐트 공동체가 교회이기를 희망해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이민교회 공동체들이 자연에서 배우는 "이름다운 비행"이기를 소망해봅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불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종교개혁, “운동”으로 다시 시작돼!

(1면에서 계속)

이 의는 하나님께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선의(Good will)요 호의(Favor of God)다.

이 새롭게 이해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죄인에게 은혜(Gratia)로서 나타나며 이 은혜는 오직 믿음(Faith)을 통해 죄인에게 매개된다. 즉 믿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죄인이 내미는 마음의 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소지가 우리 밖에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된다. 즉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의 종교개혁 작업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위에 자신의 종교를 쌓아가려는 로마 가톨릭교회

에 대항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었다.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라고해서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감동(영감)에 대해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또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믿음의 중요성에 무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급진적이었던 것은 이 말들 앞에 붙은 한 작은 단어, “오직”(sola)이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것들을 말하면서도 실은 그 밑바닥에는 인간 중심의 종교가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말하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권위를 그 위에 세웠으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이 율법의 의를 쌓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능력’으로만 이해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

을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어느덧 ‘선행(善行)으로 형성된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은 그 문자가 자명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서,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해석자도 중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성경만오리!),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신앙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주시는 ‘호의’(신학용어로 이를 ‘칭의’라고 한다)로 이해했고(은총만오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단번에 모든 율법을 성취하며 인간을 의롭게 한다고 하였다(믿음만오리!).

결국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교권주의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신학과 교리의 최우선의 권위는 성서라고 주장함으로써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결론으로, 교회는 다시 루터의 개

혁 원리에 입각한 ‘개혁 운동’으로 돌아서야 한다. 바로 기독교는 어느 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도’로서가 아니라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회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싸늘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러내신 사람들의 살아있는 ‘몸 곧 생명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또는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그러나 항상 ‘운동’으로서의 기독교는 ‘제도화’에 묶여버린다. 그러다가 다시 “운동”으로 거듭난다. 교회가 제도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 속에서 다수 또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시대 시대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운동이 출현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되신다는 것과, 굳어져가는 제도권 교회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것이다.

소망 칼럼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사람은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가령 국가대표 선수 편에 선 국민은 대표선수가 승리하면 모두 승리자가 되고 패하면 모두 패배자가 된다. 성도들은 우리의 대표대장 예수가 이미 마귀와 세상을 이기었으니 우리 모두 이긴 자들이며 따라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요16:33).

성도는 언제나 참 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만약에 거짓 신의 편에 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갈멜산에 올라가 거짓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참 신 하나님을 택하여 그의 편에 서라고 촉구했다(왕상18:20-24).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여호와와 종교와 거짓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종교가 혼합되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여호와와 신과 바알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편이 참 신인가를 확인하고 이제 참 신을 택하여 그를 섬기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부간 한 말도 대답치 못했다. 그 이유는 ‘여호와와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아합 왕이 섬기는 거짓 신’으로서 어느 한 편을 택할 경우 신적 권위를 가진 엘리야를 거스르는 것이 두렵고 또 아합 왕의 지엄한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 됨으로 두려웠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합왕의 왕권이 두렵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기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신앙적 바른 결단을 내리라는 촉구를 받았던 것이다.

옛날 어느 교회에 전혀 아무 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노인 신자가 교회에 늘 출석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 교회의 어떤 교인이 그 노인을 보고 “찬양도 못 듣고 설교도 못 듣고 기도도 아무 것도 들을 수 없으면서 무엇하러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라고 하였다. 새벽마다 교회 나가 새벽기도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을 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누가 보아도 그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받는 성도들이어야 한다. 사람들과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목사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참 신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그는 하나님의 편이다 그리스도의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란다. 남이 보고 과연 그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잘 하기 바란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서기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편에 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기 바란다. 누가 무어라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편에 서기 바란다. 그리고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한다.

“내버려둬(Let it be)” 가 참 사랑 아니다!

(1면에서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회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랑”, “진리”, “평화” 등은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하지 않은 자에 의해서 그 의미가 쉽게 왜곡된다. 그

13:13)는 말씀은 불신자들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쉽게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가치이다.



“신자와 불신자 경계 분명히 하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없다. 특히 여러 가치들 중에서도 “사랑”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왜곡된 사랑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과 권위는 양립불가하다.”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리 없다.”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신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며 무조건 포용하고 용납하기, 즉 “그냥 놔둬라(Let it be)”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교회에

도 이런 생각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랑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는 크게 다르다. 예수님은 “편한 관례”를 이루기 위한 사랑을 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신적 권위로 다가갔고, 그 권위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셨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모임은 결코 친한 친구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인공지능(AI), 인류 생존에 위협 줄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경고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옥스퍼드 마틴 대학 조사에 의하면 인간이 현재 수행하는 직업의 40%까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될 수 있다. 호킹을 포함한 일부 인사들은 “무절제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류에게 물리적 위협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의한다.

이번 경고문은 인공지능과 그 잠재적 이점을 설명한 훌륭한 연구를 링크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아래 사항들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연구가 시급하다고 했다.

▲자율 기기에 대한 법과 책임: 무인차 사고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기계 윤리: “거대한 손해와 대비해 인간이 입을 비교적 작은 손해를 무인차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다른 차에 탄 두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차가 당신을 희생한다면?

▲자율 무기: 살생 로봇도 제네바 협정에 귀속돼야 하나?

▲프라이버시(사생활 권리)

▲직업윤리 이 오픈 레터는 스탠포드 대학이 발표한 ‘인공지능에 대한 100년 연구’에서 추출한 섬뜩한 인용구로 끝난다.

“인간의 의도를 무시하는 슈퍼지능의 생성으로 인간은 인공지능 체계에 대한 관리능력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체계는 인

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디스토피아 같은 결과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까?... 따라서 어떤 연구에 투자를 집중해야 위협적인 슈퍼지능이나 ‘지능 폭발’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그걸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도 아직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위험한 단계에 도달해있지는

않다. 그리고 인류에게 부여될 잠재적 이점도 아직 엄청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엄청난 재정이 그 발전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이다. 이번 오픈 레터는 완전한 인공지능이 세상에 등장할 때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

11월 1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1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0월 31일 잠들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Family Touch 패밀리 터치 가정사역 센터에서 준비한 알찬 가을 프로그램!

가족이 소중하기에 패밀리 터치가 있습니다.

제7기

자녀 양육강사교육

영적, 정서적으로 기초가 견고한 가정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웁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

날짜: 12월 7일, 8일 (월, 화)
 시간: (월) 9:30am - 5:30pm
 (화) 9:30am - 1:00pm
 장소: 패밀리 터치 오피스
 240 Grand Ave, Leonia NJ 07605
 수강료: \$280
 문의: 패밀리터치 201.242.4422

패밀리 터치의 자녀 양육 강사교육은 패밀리터치가 개발한 자녀양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된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원칙’의 저자 정정숙 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제2회 목회자 부부를 위한

사랑 플러스

"행복한 부부, 행복한 목회"

일 정: 11월 9일(월) - 11월 10일(화) 1박2일
 시 간: (월)오전 10시 - (화)오후 10시
 장 소: DoubleTree Hotel by Hilton
 2117 Route 4 East Fort Lee NJ 07024
 대 상: 목회자 부부이면 누구나 (20커플 제한)
 비 용: \$100 커플당
 문 의: 패밀리 터치 201.242.4422

하나님께서 함께 당신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맺어주신 목회자 부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목회라는 특정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패밀리 터치에서는 목회자 부부들을 위해 마음껏 나누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제 2회 목회자 행복 플러스를 준비했습니다.

후원: 찬양교회 NJ, Dr. Michael Shin

등록 접수중 등록문의: 201-242-4422 또는 familytouchusa@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성프란시스 (1)

많은 신앙인들은 말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바울 이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은 그 만큼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은 누구보다 자기 부인이 철저했고 지독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같은 텍스트인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목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바운더리가 같고 삶의 방향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남긴 족적은 8백년이 지난 지금에도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여 그의 사역의 현상이었던 아시시(Assisi)로

몰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무쌍하게 옷을 갈아입지만 영적인 자리는 항상 그대로이기에, 인생은 항상 목이마릅니다. 그래서 허허롭고 허전해 합니다. 우리가 허허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주로 영접하고 수시로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은 온통 눈만 뜨면 물질적인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분명한 믿음과 철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침몰당합니다. 사실 것처럼 찬란하게 보이는 대상도 손에 잡는 순간 별것 아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와가 보았지만 탐스럽게 보여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 안달해 야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따 먹자마자 하나님 같이 되려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야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슬픈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나방처럼 자신이 죽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불가로, 불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그 길을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힘겹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H대 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이미 유명인이었습니다. 유학 오기 전 동아미술대상을 받았으니 그분의 미래는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유학하는 친구들의 조각 작품은 쉽게 팔리는 데 정작 자신의 작품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어느 날 밤늦게 먼 길을 달려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들으면서 밤을 하얗게 새워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가 한말의 키포인트는 자신의 예술성을 알

아주지 않는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평론가의 탈락지근한 칭찬의 글을 기대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차라리 성악 공부 가 낫다고 말입니다. 성악은 수많은 청중 앞에서 "땡" 소리를 내면 금방 청중은 그의 실력을 알게 되는데 미술은 평론가의 평이 절대적으로 청중의 마음을 좌우한다는 거였습니다. 고로 순수미술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업성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순수 미술로 가라고 고함치는데 그 말을 따르면 배가 고프고, 상업성으로 가면 배는 채울 수 있는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역시 신앙의 길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머리 깎고 맨발로 탁발하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를 따르지만 하면 아시아에서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었

습니다. 한 마디로 아버지로 인해 노력 없이도 앞날이 보장되었습니다. 앞날의 신분 상승이 보장되는 멋진 길을 왜 성 프란시스는 포기했을까요? 왜 당시로 보면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심대 끝자락에 군인으로 차출되어 10여km 떨어진 페루지아(Perugia)와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이태리는 도시국가였기에 심심하면 가까운 이웃도시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어 페루지아의 감옥에 갇혀 일 년여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곳에서 영원을 추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수감되었던 페루지아의 감옥은 축복의 현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는 감옥, 그 감옥을 찬란한 여명이 빛나는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 프란시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푸 / 른 / 초 / 장

장용호 목사
(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다. 16세기 시대에 살던 종교개혁자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고 신앙고백을 한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여본다. 그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은 무엇으로 부터인가?, 그들이 주장한 신학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험하였다. 루터는 인간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인간이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인간의 거룩한 행위가 어느 만큼인지도 알 수도 없고, 어

게 된다는 주장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주장한 이유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칭의와 성화'의 교리가 없었다. 가톨릭에서 흔히

선언하다라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이 법정성을 얻는 유일한 근거 역시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를 얻는 유일한 근거이고 원천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방편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므로 성취하신 의로움이 칭의의 유일한 공로적 근거이다. 이 의로움은 믿음을 통하여 법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의로움인 칭의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칭의는 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만이 갈 수 있고,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가는 길이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율법을 통하여 확인된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롬3:10-11), 오히려 율법으로 확인된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4). 즉, 그리스도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는 자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방편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된 칭의는 영화에 까지 이른다. 롬8:28-30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칭의에서 영화로 도약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참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천국의 시민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 개혁교회라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인하여, 1)하나님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며, 2)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있고, 3)인간의 사랑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행위구원론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경적인 신학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함에 있다. <6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롬 3:19-24)

무엇으로부터 개혁인가? 카톨릭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내면이 완전히 의롭게 변화된다고 하였다. 즉 '칭의'를 '의롭다'고 선언하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행함으로 '칭의'가 진전된다는 행위구원론을 가르쳤다. 루터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오히려 평안과 확신보다는 불안과 고난과 쓰러린 체면만을

디까지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루터는 그런 고뇌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루터는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거룩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로움에 근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만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다(롬3:24). 루터는 이러한 칭의 교리를 이해 할 때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얻

는 '의화'(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여 죄인이 의롭게 됨) 용어를 사용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의화'의 개념을 두 개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카톨릭의 행위구원론에 대하여 사도들이 전한 원천적인 교리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다. 칭의 교리의 중요성 칭의(Justification)는 '의롭다'고

자들의 믿음과 삶의 전 과정을 받들고 있는 영원한 은혜의 반석이 되는 것이다. 성화의 과정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국면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참된 칭의는 성화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이다. 성화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다(고후5:17). 다시

이니라"(롬3:20)라고 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행위구원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하였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은 너희의 행함으로 인한 자랑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학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학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10월 31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구습과 전통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개혁을 단행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개혁의 날에 잘못된 문화축제가 세계적인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화의식은 단호하게 배척하며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경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마귀의 치밀하고 집요한 공격에 넘어가기 때문에 매해마다 반복되어 맞게 되는 이 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1. 할로윈의 기원

할로윈(Halloween)의 Hallow(Holy 거룩한, 성스러운)는 옛 영어이며 ning(Eve)은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로윈은 All hallow's Eve(ning)이라는 말로, 거

학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근간은 이미 켈트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켈트족은 중북부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여기도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영국으로 전해지고 청교도들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다시 기독교가 건너가면서 켈트 문화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켈트족의 신년은 11월 1일이며,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은 한해의 마지막 날로 가을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하하며 풍요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날 밤 모든 악령과 마귀를 몰아내고 새해의 행운과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렸는데 이것이 바로 할로윈 축제의 기원입니다.

2) 로마제국(로마 천주교)에서의 변화
4세기 경 로마제국이 세계를 장악했을 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제국에 의해 점령되었고,

택할 것인가?"라고 다그치고 처녀를 바치지 않는 마을은 전체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일랜드 지역은 연중 겨울과 여름이 대부분인데, 아일랜드인들은 10월 31일을 여름의 끝이고,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름이 끝나는 10월 31일에 각종 유령과 마귀와 귀신들이 찾아와 산 사람 속에 들어가 다음 해에 다시 태어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은 그 유령과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 집안의 불을 끄고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꾸미고,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쓰기도 하며, 귀신들이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이나 가면 쓰고, 밤에는 동네마다 장작더미를 쌓고 불을 피웠습니다.

2) 현대의 할로윈데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하면서 그 풍습이 대대적으로 미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10월 31일 어둠이

(Wittenberg) 성당 문에 게시함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의 길을 다시 회복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10월 31일에 사단을 숭배하던 이방인의 풍습이 "성인(죽은 자)을 숭배하는 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뀌어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로마 카톨릭교회 안에서 지켜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죽은 망자(성인들)를 숭배하는 날로 선포하여 지키던 할로윈 데이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외치며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날로, 그런 잘못된 행습과 교리와 우상에 대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선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개혁의 날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사단 숭배와 미신으로 물들어 가던 중세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기 위해 일어섰던 마틴 루터의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할로윈(Halloween)과 교회개혁(Reformation)

룩한 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문화적 기원

유럽의 4대 민족(Slave, German, Latin, Celt) 중의 하나인 켈트족은 2500년 전 사메인(Samhain)이라는 죽음을 신을 섬겼는데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은 사메인(사빈의 날)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사메인 신을 달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에게 쫓겨 북유럽 아일랜드에 정착하였습니다. 켈트족은 미신적인 다신교인 드루이드(Druids) 문화를 가졌습니다. 한편,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들의 신들은 로마신화의 신들과 비슷한 상징을 지니는 신들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래 이후 3세기에서 1,000년 무렵까지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험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설과 영화로 이미 잘 알려진 해리포터(Harry Potter), 반지의 제왕(Lord of Rings), 아더왕 이야기(King Arthur), 백설공주(Snow White)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 켈트족 문화의 영향입니다. 아더왕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전래 후에 완성되어 성배의 전설과 같은 기독교문

기독교를 국교화 하자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자신의 종교도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메인 숭배 풍습이나 인신제사를 제외하고 그대로 악습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악습이 퍼지는 것을 염려한 교황 그레고리(Gregory) 4세는 주후 840년에 5월 13일의 모든 성인의 날(All Hallow's Day)을 11월 1일로 바꾸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그 전야제(All Hallow's Evening)로 정하여 로마카톨릭의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로 정함으로써 켈트족의 사메인 종교 풍습과 연계시켰습니다. 그 전야제를 All Hallow's Eve로 표기하다가 나중에 Hallowee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10월 31일은 영혼이 정화되는 날(Purgatory)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와 교회개혁의 날(Reformation)

1) 켈트족의 의식인 할로윈 데이 켈트족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밤에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햇빛을 밝히고 마을마다 다니며 강제로 처녀를 제물로 받아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마을에 갈 때마다 "처녀를 바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시작되면 아이들은 기괴한 가면과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바칠 것인가? 아니면 보복을 당할 것인가?(track or treat)라는 외침 소리로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과자나 사탕을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주는데 이것은 귀신에게 처녀를 공양하던 형태를 자연스럽게 사회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밤은 특히 속을 파낸 호박이나 순무 속에 촛불을 밝히는데 원래 이 초는 처녀들을 불태워 죽인 후 생긴 인유로 만든 것으로 드루이드들은 집집마다 이 초를 켜게 해서 "우리가 사단을 숭배한다"고 하는 표시로 삼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호박 속에 촛불을 켜놓고 있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상가나 변화가에 해골이나 박쥐 모형이 걸리고 거미줄이나 호박이 장식되며,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할로윈 파티를 즐기며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의 꾀계(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옷을 입으라(엡6:11)"고 말씀합니다.

3) 마틴루터의 교회개혁의 날 마틴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카톨릭을 대항하여 카톨릭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95개조항의 문서를 독일의 비텐베르크

3. 문화적 입장으로 본 할로윈과 교회

미국에 이민 온 아일랜드인들이 들여온 비기독교적이고 미신적인 전통에서 유래된 풍습이 이제는 이 땅의 문화와 상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화이든지 문화는 그 문화를 접하고 있는 이들의 사상과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문화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롬12:1)"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4. 영적 전쟁의 입장에서 보는 할로윈데이

1) 로마카톨릭의 의도 마틴 루터의 교회개혁 이후, 로마카톨릭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개혁의 날은 망각하고 싶은 날입니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과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틀란타에서 80세 된 성도

A: 예루살렘의 멸망은 구약에서 다니엘서 9:26절에 잘 이미 다니엘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하반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갈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은 칼빈과 에드워드 영이란 구약학자는 주후 70년경의 로마의 장군 디도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속주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 직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제국은 기본적으로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며 통치자로서 균형을 유지했으나, 다신교 문화인 지중해 세계 안에서 그리스나 에스파냐, 갈리아, 북아프리카와는 달리 유대 속주는 유일신교라는 독특한 문화를 지닌 지역이었고, 이들은 유일신교를 이유로 동화를 거부하

예루살렘 멸망, 예수님의 예언대로(마27:25)

며 로마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세계를 거두는 과정에서 폭리가 취해졌고 그로 인해 불만이 높은 상태에서 이교도인 로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지명하자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39년경에는 갈리굴라 황제 자신이 스스로 신을 자칭하며 제국 전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성전에 세우게 한 사건을 계기로 터져버렸습니다. 야훼(하나님)외에는 주가 없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황제를 우상화하는 로마제국의 종교정책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대제사장들을 집단살해하고, 성전세로 민중들을 수탈한 죄의 증거인 채무 문서를 불태워버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의 착취와 그 배후인 로마제국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디도는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일년 이상 예루살렘 외곽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갈릴리와 여러 유대지방을 점령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항전에 분노하여 유대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낙심하여 자살하는 자도 속출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수천 명이 피살되고 3만 명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질서는 극도로 문란해지고 유대인중에는 내란이 일어나 항전과 평화파로 나뉘었습니다. 대제사장 직은 아주 수척스럽게 무너졌고 항전파는 암살대를 사용하여 평화파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성전 바깥쪽에는 피가 넘쳐흘렀고 하루에 8500구의 시체가 거기 있었습니니다. 이렇게 내란으로 인한 시체는 매장되지 않고 버려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동안 110만명이 죽었고 9만7천명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성읍은 파괴되었습니다. 기근을 당한 유대인들은 밤중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와 구하려 다니다가 잡혀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았는데 하루에 약 500명씩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십자가 형구 하나에 너무 많은 사람이 형을 당하기 때문에 시내에 시체를 매장할 수가 없어서 골짜기에 시체를 굴러버렸습니다. 도망가던 사람들 중에는 저축하였던 금을 입에 물고 피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마27:25). 그래서 주님은 이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인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자초한 화였습니다. 예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한 결과입니다.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창립총회

(대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한국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총신인으로 교양과 영성과 실력을 쌓고 현지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학자로, 교사로, 전문직업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총신 동문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친목과 화합을 나누고자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만나 격려와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 이곳 남가주에서 다시 한번 옛정을 나누며 서로 용기와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자랑스러운 총신동문들을 창립총회에 초청합니다.

참가자격:

- 1)대학부 졸업자 :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양교직과, 다문화한국어학과
- 2)대학원 졸업자 :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 3)신학대학원 졸업자

□ 일시: 2015년 10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만리장성 2층 (213)384-1119
989 S. Dewey Ave, L.A. CA 90006 (올림픽과 카탈리나)

창립 총회를 마친 후에는 점심과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 동반 환영) (문의전화: 213-507-3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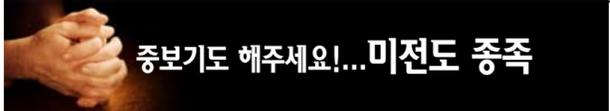
2015년 10월 22일

총신대학교 총동문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최순길 목사 총무: 안기정 목사

준비위원: 박부환, 박건섭, 김광삼, 김경일, 김선일, 김요셉, 남성수, 문상면, 민경엽, 민중기, 박민재, 백창남, 서오석, 신용채, 신인석, 양경선, 양종석, 유우길, 윤목, 윤태근, 이명구, 이병구, 이윤희, 이재경, 이철훈, 장상근, 정병노, 정우성, 정충일, 지윤성, 최동진 (가나다 순서)

후원 : 총신대학교(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기독교신문사(교단신문) 남가주 한인회 기독교서적센터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루우(Luwu)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민족적으로 다양한 인구를 가진 국가 중 하나다. 300종족 이상의 다민족 그룹이 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무슬림이다. 아시아 남동부에 위치해 있

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중요한 바다 길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39만4천9백 명의 루우족은 중부 술라웨시(Sulawesi)의 동쪽 부근에 위치한 루우(Luwu) 지역에 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림봉(Limbong)과 샬방(Sabbang) 구역에서 산다. 루우(Luwu) 또는 태오(Tao)라 불리는 그들의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안 언어계에 속하고 또한 이 지역의 주요 종족 그룹 중 하나인 토라자(Toraja) 언어와 다소

연관을 갖는다. 루우족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과 문화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나, 중부 술라웨시 지방의 다른 종족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삶의 모습

술라웨시는 그 해안선이 약 3천 4백 마일에 이르는 섬이다. 술라웨시 섬은 깊은 만으로 구분되는 4 개의 반도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개의 반도 중 두 개는 남쪽을 향해 뻗어 있고, 두 개는 북쪽을 향해 있다. 술라웨시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은 남부이며, 롬포바탕(Lompobatang) 산은 9,419피트 높이의 휴화산이다. 이 지역의 기후는 열대성이지만 바다와 인접하고 고지대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소 다른 특성을 띤다.

루우족은 화전방식을 통한 쌀을 주식으로 하며, 고구마, 사탕수수, 다양한 야채, 담배, 커피 등도 재배

한다. 그들의 집은 개척한 땅에 산발적으로 위치하며, 보통 대나무 위에 높은 집을 짓는다. 집은 일반적으로 풀을 엮어 만들며, 지붕은 매우 높다.

높은 귀족과 낮은 귀족, 평민으로 구성된 엄격한 사회 계층은 술라웨시 지역의 종족 집단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양한 관습과 전통을 따르면서도 각 계층은 일반적으로 자신들만의 행동 규범을 갖는다.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촌락 단위로 나뉘며, 땅을 사용하는 권리는 촌락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그 위원회가 땅의 소유권을 갖지는 않으며, 모든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자를 인정해준다.

루우족의 결혼풍습은 약혼 시에 소녀의 가족에게 돈이 요구되고 결혼할 때도 다시 그렇다. 신부대금은 신랑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결혼에 앞서 남자는 장차 장인이어린 될 사람을 돕는 예비기

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많은 가솔(남녀가 눈이 맞아 도망감)의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에 노예와 그들의 자녀들은 같이 살 수는 있었지만, 노예가 서로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또한 귀족 여성은 평민과 결혼하지 않았다. "일부다처"는 귀족의 일부 사이에서는 일반적이었지만 더 이상 존속되고 있지 않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8백만 이상의 농부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과다인구 지역의 사람들을 덜 개발된 섬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정부는 땅과 집, 다른 지원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앙

이슬람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에 지배적인 종교이며 많은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14세기 이전까지 섬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힌두교는 현재 주로 발리 섬과 같

은 곳에서 소수만이 믿고 있다. 국가 전체 인구의 약 13%는 기독교인이고 주로 개신교다. 많은 수의 중국 화교들은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따른다. "정령승배"는 먼 도의 지역의 부족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슬람은 16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주된 종교가 됐다. 루우족의 95%가 사피이테(Shafi'ite) 무슬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앙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악령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루우족에게 기독교와 접할 수 있는 자원은 없지만,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단체가 하나 있다. 성경과 다른 복음 자료들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고 선교사역이 더욱 확장돼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영국, 외국인 선교사 66명 비자 취소

국제오염(OM)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할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영국이 비유럽연합(EU) 출신자들에게 대한 이민 절차를 강화하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국가 영국에서 선교사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27일 미국 기독교 월간 '크리스천티티투데이'와 한국오염선교회(대표 김수용 선교사)에 따르면 영국 이민국(UKVI)은 최근 심사를 통해 66명의 비유럽 출신 선교사들의 비자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은 올 연말까지 영국을 떠나야 한다. 66명 중엔 한국인 선교사도 16명(장기 6명, 단기 10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오염선교회 관계자는 "이번 비자 허가 취소 결정은 비자 발급에 따른 재정 기준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당 선교사들은 1년 후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66명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선교사들로 미디어와 선교전략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떠나게 되면 선교 사역의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오염선교회가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제단체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잖은 타격이다. 한국오염선교회는 선교 공백에 따른 대안을 마련 중이다. 유럽 난민 사역이나 이슬람 선교 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영국에서 비유럽계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 취소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제예수전도단(YWAM) 소속 300여명의 선교사들이 비자 취소 조치를 당했다가 올 초 회복됐고, 2년 전에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 사이에선 영국이 선교사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영국 예수전도단 마크 베닝은 "영국 정부는 이민자 숫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체나 조직을 찾고 있는데 대형 종교단체들이 대부분 표적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이민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3만5000파운드 이상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포인트제도 도입으로 카테고리별로 점수 합산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영주권 자격이나 학생비자 신청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금부족' 남침례교연맹 선교사 줄여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외국 선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저널이 26일 보도했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연맹'(Southern Baptist Convention)의 선교사파견사업기관인 국제선교이사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 파견 선교사를 15%가량 줄일 계획이다.

국제선교이사회는 평균 연 5만 달러를 지원하는 선교사를 4천800명 보유하고 있으며, 선교사와 별도의 지원 인력도 450명이 있다. 국제선교이사회는 이들 인력 중에서 적게는 600명, 많게는 8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로 나이 많은 선교사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사업이 선교사 감축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금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월 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주로 현금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이전에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현금이 경기 침체 여파로 감소한 것이다.

수입이 줄어든 국제선교이사회는 자연감소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이 때문에 최고 5천600명에 달했던 선교사가 지금은 800명이나 줄었다.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2013년과 2014년에는 현금이 1억5천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1억7천500만 달러에는 못 미친다. 국제선교이사회는 교단의 유보금을 사용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37년 동안 국제선교이사회에 몸담았던 웬디 노르벨 대변인은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라면서 자신도 조기 은퇴 제안을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5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해 온 피터 스티븐스와 제니 부부도 조기 은퇴한 뒤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에 암하러여 성경 2만여부 기증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최근 경기도 용인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서울 총신교회(이전호 목사) 후원으로 에티오피아에 보내는 '암하러여 성경' 2만여부 기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암하러여는 에티오피아의 고유문자로 공용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선 드물게 고유 문자를 갖고 있다.



에티오피아 성서공회는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는 '성경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선 에이즈 환자, 에이즈 환자의 가족 등 지난해 기준 73만여명이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만 2만3000여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이전호 총신교회 목사는 기증식에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상황이 열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며 "암하러여 성경을 통해 나아지는 속도가 빨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증식에 참여한 반성론 총신교회 장로는 "기독교 역사가 깊었던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특히 성경을 읽은 에티오피아 청소년들이 잘 양육 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권의현 사장은 인사말에서 "성경 보급 사업에 헌신한 총신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총신교회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암하러여 성경 2만여부는 다음달 2일 부산항에서 배편을 이용해 12월 20일 에티오피아에 도착할 예정이다.

카스, 트럼프 제치고 전국단위 첫 1위...미 대선 레이스 오프

신경외과 의사 출신 보수는 객인 벤 카슨이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처음으로 1위 주자로 떠올랐다. 역전을 당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3차 TV토론을 하루 앞둔 27일 공화당 대선 경쟁의 지형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CBS와 뉴욕타임스가 지난 21~25일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국단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카슨은 26%의 지지를 얻어 22%에 그친 트럼프를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카슨이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카슨은 내년 2월1일 대선 경선 첫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릴 '대선 풍향계'로 통하는 아이오와 주를 상대로 한 최근 잇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누르고 선두를 차지함으로써 경쟁력을 예고했다.

또 지지 기반인 보수적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카슨은 트럼프를 20% 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트럼프가 자신이 정통 개신교라는 점을 부각하며 카슨의 '믿음'을 문제삼고 나선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이로써 지난 7월 이후 100일 이상 몰아친 '트럼프 대세론'이 꺾이고 이제 또다른 아웃사이더인 '카슨 돌풍'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은 "이번 여론조사는 28일 공화당 3차 TV토론을 앞두고 몇몇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

에서 트럼프를 누른 카슨에게 더욱 가속도가 붙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BS는 "카슨이 복음주의자 등 공화당의 많은 주요 그룹들로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들의 지지에서도 카슨이 트럼프를 앞선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3차 TV토론에서 부동층의 지지를 얻기위한 주자들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날 MSNBC '모닝 조'에 출연해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의 잇단 역전에 대해 "그런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벤 카슨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1위 주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8%의 지지를 얻어 3위를, 휴렛 팩커드 최고경영자 출신인 칼리 피오리나와 웹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각각 7%를 얻어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벌금 낼 돈 없으면 헌혈하라'...미국 법원 판결 논란

"피고인 여러분, 만약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헌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수감을 채웁니다." 미국 앨라배마 주의 한 순회법원 판사가 벌금형을 받은 경범죄자들에게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매혈(賣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금'하는 방식으로 판결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20일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마빈 위긴스 판사는 지난 9월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에게 "잠고로 피고인들에게 법정 바깥에 헌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서 재판을 시작했다. 위긴스 판사는 "만약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면 헌혈한 뒤 영수증을 받아오라"면서 "헌혈 영수증이 없으면 바로 구금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폭행, 마약 소지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범죄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위긴스 판사의 말대로 헌혈한 뒤 100달러짜리 영수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풀려났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지역의 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범죄자들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벌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혈을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대학병원에서 의학윤리 문제를 담당하는 아서 L. 케플러 교수는 "법원이 벌금 대신 헌혈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위긴스 판사의 '매혈 강요' 당시 법정에 있었던 제임스 M. 반스 변호사는 "벌금 대신 헌혈하라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면서 "정말로 희한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법원이 '헌혈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0년대 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는 직후 교통신호 위반자들에게 벌금 대신 헌혈하도록 한 적이 있다. 부상자를 치료할 피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감제 헌혈'이 간염 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1970년대부터는 범죄자가 아닌 자원자로부터의 헌혈로 방식이 바뀌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혈액을 받은 뒤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매매를 통해 얻은 혈액에 대해서

는 '지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병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지불' 표시가 된 혈액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카페 이색 제언 "유대-아랍인 함께 식사시 반값 할인"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 이스라엘 카페가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식사하면 식사비의 절반을 할인해 주겠다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놨다.



20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도시 네타니아 인근 크파르 비트킨 지역에 있는 'M 물' 상점 내 '후무스 카페'가 최근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이 카페 내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식사를 하면 이같이 식사비를 50%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카페는 페이스북에도 이러한 할인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아랍인이 두려우나? 유대인이 두려우나? 우리와 함께라면 아랍인도 유대인도 없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은 사람들이다"란 문구가 들어 있다.

또 "같은 식탁에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앉는다면 특별히 50%를 할인해 준다"는 문구도 광고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 카페는 손님들이 아랍인, 유대인, 기독교인, 인도인인들 간에 정통 중동 음식인 후무스와 팔라펠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카페의 주인인 코비 차프리리는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이유에 대해 "중동의 전통 요리로 양측의 긴장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아랍권 위생방송 알자지라에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폭력 사태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고 서로 닮은 인간들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양측의 충돌로 팔레스타인인이 44명이 숨지고 이스라엘인 8명이 목숨을 잃었다.

美 기부총액 72%가 개인 기부...몸에 밴 자선

미국의 기부총액은 금융위기 같은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기부현황을 공개하는 비영리단체 기빙 유에스에이(GIVING US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기부총액은 3580억 달러에 전년(3352억 달러) 대비 228억 달러 늘었다. 이중 개인이 기부한 금액은 2585억 달러로 전체의 72.2%에 달한다.



미국의 기부금액은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8-201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표 참조). 통계에 따르면 1974-2014년 미국 기부금의 증가율은 연평균 2.5%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1%)보다 높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기부금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사그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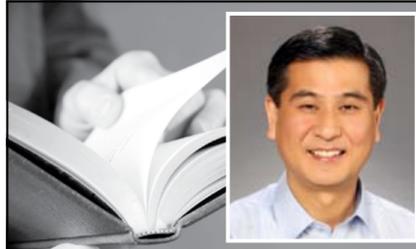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이뤄낸 요인을 알아보고자 지난달 21일 한국NPO공동회의 연수단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유나이티드웨이워드와이드(UWW) 본부를 찾았다. UWW는 미국의 최대 모금단체로 연간 모금액은 52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에 1200개 지부가 있으며 2012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50대 브랜드에 비영리단체로는 유일하게 26위로 이름을 올렸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심지어는 정의 교리를 왜곡하면 이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오늘날 개척교회가 '정의와 성화'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상실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이다.

맺는 말
종교개혁일을 맞이하면서 '정의와 성화'의 교리를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순결한 신부이다. 주님의 몸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서 있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고난의 끝, 방향의 시작 (4)

영적 황무지였던 조선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19세기 말의 일이었다. 2천년 기독교 역사와 비교하자면, 늦은 시간에 미약하게 시작된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파위를 실감한다. 급성장한 한국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이다. 특히 교인수가 가장 많은 교회와 학생이 가장 많은 신학교가 한국에 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면에서

않았지만 걸로는 포기한 것처럼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서 서로 격려하며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시점에, 과거 어려운 시절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로 인하여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오래전 기독교가 시작되어 복음의 열매가 무르익었던 북아프리카였다. '초대교회 10대 박해'의 마지막 주자였던 디

틴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세속화되어 되었고, 분리하여 자신들이 속한 교회가 정통성을 지녔다고 주장하였다.

도나티스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311년에 케실리안(Caecilian)이 카르타고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자리에 펠릭스(Felix)라는 북아프리카의 감독이 참석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본다. 펠릭스는 박해 기간 중에 성경을 포기한 '배반자'이기 때문에, 그가 안수한 케실리안의 임직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마조리누스

녀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이 아닌 마른 빵에 키스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지녔던 그녀는 두 일로 함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케실리안을 대항하였다. 그들은 펠릭스가 '배반자'이기 케실리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교묘한 방법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 자신들의 힘으로 마조리누스와 도나투스를 감독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나티스트들은 순수한 교리적인 이

세력이 북아프리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로마교회와의 갈등 구도로 발전되었다. 314년 8월, 이미 온 교회가 도나티스트들에 대하여 알게 된 상황에서, 교회 감독을 중심한 교회 지도자들이 아를레스(Arles)에 모였다. 초대 교회를 흔들어놓았던 큰 사건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지닌 채 참석하였는데, 물론 도나티스트와 감독들도 함께 초대하였다. 콘스탄틴이 먼저 이 모임을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도나티스트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여러 교회 감독들에게 이 문제를 다루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지니고 참석한 감독들은 도나티스트들의 교리의 신학적 오류와 교회 분열이 지닌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마쳤다. 물론 도나티스트들은 이 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되어 그들을 진압하였다. 그 후로 도나티스트들은 교회 밖의 새로운 교회로 정체성을 더욱 굳혀갔다. 자신들의 경험이 기초가 된 '교회의 순결'에 대한 주장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사건은 교회의 분열이란 부끄러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고린도전서 1:2; 에베소서 4:4-6, 11-16; 요한복음 17:20-23

'가톨릭'이란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와 달리, 보편적 교회로서의 '공교회'(catholic church)를 지칭하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 성경에는 카톨릭이란 단어가 없다. 그러나 '전체(holon)'에 '속한 것(kata)'이란 의미를 성경의 진리로

초대교회는 '교회 순결성'보다 '교회 보편성'에 대한 강조로 시작 도나티스트들의 경험에 의한 '교회 순결' 주장으로 교회분열 시작 진정한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 성품 드러내며 그리스도와의 관계 통해 주어져

도 세계 최고 이다. 한국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역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분열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열의 아픔은 오로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대 교회 이후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의 길을 걸어왔다.

질문: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핍박 속에서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초대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부끄러운 과거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이후, 초대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향하려던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 있었다.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였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붉은 피를 먹물삼아 기록되었다.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유산이 되어 후대에 계승된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한 사람들, 신앙의 자리로부터 도피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 자체를 버리지

오를레시안(Diocletian, 284-313) 황제는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 지낼 것을 명령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예배 장소를 없애는데 주력하였다. 그뿐 아니라, 성경 필사본을 모두 태우라는 칙령을 내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넘겨준 자들과 끝까지 넘기지 않은 자들로 양분되기도 하였다.

교회 분열의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는 과연 어떤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있었다. 황제의 핍박을 이겨낸 자들은, 교회는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교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들은 핍박을 이기지 못한 자들을 '배반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배반자'들을 '때로 더럽히지 않은 순교자의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더욱 부끄러운 과거

나름 당당한 과거를 지녔던 자들은 '도나티스트(Donatist)'라고 부른다. 313년에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은 도나투스(Donat)의 사상을 따라 콘스탄

(Majorinus)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출하여 자리에 앉혔지만, 313년에 마조리누스가 죽자 도나투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도나티스트들은 유아세례를 전적으로 부정하였다. 세례를 통하여 거듭남으로서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교리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순수한 교회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 자료에 의하면 '교회의 순결'을 앞세웠던 그들이 더욱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었던 멘수리우스(Mensurius)가 황제의 법을 여겼다는 죄명으로 인해 로마로 불러가게 되었다. 이때 교회의 지도자급 원로 두 사람에게 교회의 재산을 위임하고 떠났는데, 멘수리우스가 죽게 되자 욕심이 생겼다. 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된 케실리안이 이들에게 교회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자, 위기감을 느낀 두 사람은 아예 교회와의 관계를 끊기로 작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루칠라(Lucilla)라는 과부이다. 이 여인은 케실리안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유로서 자신들의 순수성이나 분열의 정당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시작된 교회에 대한 정책에서 찾으려 하였다.

■ 부끄러운 역사의 시작

콘스탄틴은 오래전부터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 지방의 총독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하여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로마제국 전체를 통치하던 그가, 신앙의 자유화 이전의 이슈로 인하여 북아프리카 교회가 분열되어 분쟁중이라는 소식을 어떤 태도로 접하였을까?

콘스탄틴은 지금까지의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제국의 평화를 중요시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공인한 기독교가 이 일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였다. 콘스탄틴은 초대교회의 박해와 순교를 마감한 인물이다.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확신하였던 그였기에, 이전 황제로 인해 생긴 교회내의 갈등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나티스트의

없었다.

우리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보편성'을 두고 고민하여 왔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출발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로 시작되었다.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복음이다.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죄인의 행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의 기준들을 뛰어 넘는 새로운 가치를 근거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보편성이 강조되었기에 모든 계층과 다양한 직업을 지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카르타고에서 콘스탄틴을 규탄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로마와 북아프리카 교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겨났다. 316년, 도나티스트들은 다시 콘스탄틴에게 항소하였다. 역시 교회는 도나티스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17년 로마 군대가 북아프리카에 투입

부터 얻을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죄를 범한 자와 경건한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부색이나 언어 또는 문화와 사회의 계층으로 인해 어떤 차별을 받을 수 없다. 특정한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삼가 자신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상대를 살리기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죄인을 지적하는 자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이 거룩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아니다. 진정한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인데, 참된 교회의 신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선적인 교회 또는 폐쇄적인 교회의 모습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계속)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1)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가?

성령강림사건을 그린 성화들은 모두 불이 등장한다. 기독교 2천년 역사를 통해 성령은 불로 상징되어왔다. 미연합감리교회의 로고에도 성령의 불꽃과 십자가가 사용되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구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은 친숙한 용어이다. 모두 사도행전 2장 3절에 근거한 것인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개역개정). "그리고 그들에게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새번역). "And there appeared upon them cloven tongues like as of fire, and it sat upon each of them"(KJV).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다. 불꽃이 활활 타올 때 (혀처럼) 갈라진다. 성령이 그렇게 갈라진 혀처럼 임했다고 되어있다. 갈라진 혀를 설명하기 위해 불꽃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올 때 불꽃이 혀처럼 갈라지는데, 성령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임했다고 되어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해있던 것이 아니라 혀같이 생긴 것들이 임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불꽃처럼 생기는 것은, 불꽃은 아무 관계가 없다.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과 비슷했다는 말이지 불꽃이 임했던 것은 아니다. 성령이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혀는 헬라어로 glossa이다.

그러나 이 단어가 본문에 세 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마치 불의 혀(glossa)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2:3)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glossa)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2:4).

그러자 사람들이 물러들었다. 그리고 다 놀랐다. 그들은 모두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네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glossa)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2:11).

혀와 언어는 같은 단어(glossa)이다. 혀로 말을 하기 때문이다. 혀(glossa)의 형상을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사람들은 혀(glossa)로 이상한 말(방언, glossa)을 하기 시작했다.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 일어났

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바로 방언에 있었다. 그 자리에는 16개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행2:8).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든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열망한다. 물론 성령께서 불처럼 임해서서 우리의 병행한 심령을 뜨겁게 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다른 모습으로 임하셨다. 불처럼 임해서서 심령에 불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혀처럼 임해서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은 방언이었다. 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일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 오늘날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방언은 기도의 언어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다. 천국 언어(?)이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때 나타났던 방언은 외국어였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였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 방언을 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행2:11).

외국에서 올라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왜 오순절에 최초로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오순절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16개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고 이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 그날 세례 받은 사람들만 3천명 명이 넘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다른 나라에서 살던 디아스포라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향에서 그들이 체험한 것과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사실은 바울보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던 것이다.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리더십의 코멘터리 (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의 현주소를 점검하라

배우는 리더가 되라

'삼인행 필유야사(三人行 必有我師)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뜻의 이 말은 자기 주변에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고 리더가 되려면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뜻이 조금 무색해져버린 것 같다. 현대인들은 친구나 가족, 잡지 스킵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롯해 실로 많은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함께 해나가는데, 나보다

독교와 관련된 서적만 읽다보면 세상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편견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荆棘)"이라는 말은 안중근 의사가 남긴 명언으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유명한 말이다. 누구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리더가 되기는 쉽지만 리더로서 인격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이제 가을이 되었다. 지도자들은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책을 늘 가까이 하여 하루

유형으로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독불장군형 리더'와 지시를 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팔랑귀 리더'를 들 수 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가서 이래저래 남에게 휘둘리며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자신은 고생만하는 사람을 가리켜 팔랑귀 리더라고 한다. 구성원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일만 시키는 '감성결핍 리더',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방임 리더', 현재에 안주하며 변화나 도전을 하지 않는 '현상유지 리더' 등도 본받지 말아야 할 리더십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의 현주소를 점검하자

첫째는, IF 신앙이다. IF의 의미는 "만약...한다면"의 뜻인데, "만약...해주시면, 제가 ...을 하겠다" 이런 식의 조건부 신앙을 가진 리더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나로 평안히 야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하고, 내가...하겠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기복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오늘날 리더들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이다.

둘째는, AS IF 신앙이다. AS IF는 "마치...인 것처럼"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서 11장 8-19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① 아브라함은

변혁적 리더...카리스마/파워/사이드 리더십으로 위기극복 AS IF와 Even IF의 성숙하고 순교자적 신앙으로 승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배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뛰어나다면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비록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능력이 뛰어나 배울 점이 있다면 마땅히 스승으로 모셨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미물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의 교훈을 얻는 모습을 보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는 말로 아들 같은 디모데를 권면한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신학의 흐름은 변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도 변하고, 사람과 문화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인양 생각하고, 배움에 게으른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에게는 자기 업그레이드는 물론이려니와 섬기는 교회의 변화와 성장도 있을 수 없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는 항상 열심히 배워야 한다. 배움의 방법도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독서는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만 읽는 편식 같은 독서가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

라도 책 읽는 것을 거르면 몸에 불편을 느껴야 한다. 자신을 점검하는 반성의 기회를 통해 진정한 리더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리더십

세계경제가 어렵다. 교회도 재정애 어려움을 느낀다.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악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비즈니스맨들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는 '변혁적 리더'를 원하는데, 최악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가 담당할 서번트 리더십은 '따뜻한 가슴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러 가지 유형의 리더십들이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들의 행진과 목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카리스마 형 리더십은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을 독려하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다. 파워 리더십은 최악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실과 끈기를 가지고 추진력으로 승부'를 낼 수 있다. 사이드 리더십은 최악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최악의 불황과 어려움 속에서 리더십의 유형들은 성도와 구성원을 잘 이끌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 현재의 경기불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다.

반면, 최악의 불황속에서 능력이 없는 리더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믿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이다(히11:8, where). ②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믿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히11:11, How). ③ 아브라함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를 때 믿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다(히11:17-19, Why). AS IF 신앙은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모두 확실히 이뤄진 것처럼 믿는 신앙으로서 리더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성숙한 목표인 것이다.

셋째는, Even IF 신앙이다. Even IF의 의미는 "비록...일지라도"인데, ① 다니엘의 세 친구(단3:17-18)가 황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하나님께 비록 그들을 구해 주지 않을 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다.

② 하박국(합3:17-18)은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로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성경의 사례들은 오늘날 리더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리더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의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리더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되돌아 볼 때이다.

이메일: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서시립대학교 교수)

더불어 사는 삶

일곱 남매 중 막내인 나는 언니들 덕을 많이 보는 편이다. 미국에는 나혼자 살고 있어서 한번씩 한국에 다니러 가면 언니들이 비행기표 값에 용돈까지 챙겨준다. 여행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녀오면 비상금이 마련될 정도로 사랑을 받는다. 다섯 언니 중에 큰 언니는 거의 엄마 수준이어서 요즘에도 전화를 하면 "잘 먹고 다녀라, 건강 잘 챙겨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이렇게 언니들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후원을 든든히 받으니 형제 많은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지낸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언니들의 미국 방문이 많아서 몇 달 동안에 세 언니 내외가 다녀가는 바람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살아가는 나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겨울에는 둘째 언니와 형부가 라스베가스에 사는 아들 집 살림을 맡을 일이 생겨서 3개월을 미국에 와 있었는데 동생 얼굴도 볼 겸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두 번 우리 집을 방문했었다. 오월에는 큰 언니와 형부가 여행으로 와서 3주 가량을 머물렀다. 그래도 그 때는 학교가 방학이어서 잠깐씩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큰 부담은 안되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막 시작될 후에 넷째 언니와 형부가 오랜 만에 LA에 다니러 오셨다. 같은 기간에 넷째 언니네 아들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추석연휴 동안 일주일 간 다니러 왔다.

넷째 언니는 오자마자 감기로 열흘 이상을 앓았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 늦더위가 와서 나는 밤에도 땀이 나는 데 언니는 기침이 나온다고 에어컨은 물론 창문도 꼭꼭 닫고 잤다. 형부하고 안 자고 동생하고 잔다고 내 방에서 같이 자는 언니에게 답다는 말도 못하고 밤마다 더위에 잠을 설치느라 몸이 피곤했다.

부지런한 형부는 우리 집 세 아들이 대학 마치고 갖고 들어온 침대, 냉장고, 책 등으로 가득찬 차고가 걱정되었는지 바쁜 차례 도와준다고 며칠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서 차고에 있는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셨다. 깨끗해져서 고맙기도 했지만 쓰는 물건까지 막 버린 것을 나중에 알고는 황당하기도 했다. "좀 물어보고 버리지 마..."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형부가 나는 잘 먹지도 않는 돼지고기 김치볶음을 한다고 부엌 여기저기 다 늘어놓으면 뒷처리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해진 일상의 규칙대로 조용히 살다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언니, 형부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때로는 나에게 익숙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을 따라 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했다. 더불어 살다 보니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세상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아보고 등 "서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다. 우리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라는 말들을 실천해야만 우리의 모난 부분이 주님 안에 깎이고 다듬어지기 때문이다.

엄마 생일이라고 동부에서 주말을 이용해 이를 간 다니러 왔던 막내도 가고, 두 주간의 휴가로 집에 와 있던 딸도 샌디에고로 돌아오고, 이제 형부까지 떠나서야 할 날이 왔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시던 마음이 여러 형부는 나를 두고 갈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난다고 하셨다. 계산 동안 나름대로 잘해드린다고 신경은 썼지만 때로 바쁜 스케줄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것이 죄송했다. 곧 철심을 바라보는 형부가 언제 또 오셔서 이렇게 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공황을 빠져 나오는 내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다음에 오시면 정말 잘 해드릴게요..."

이메일: lpyun@apu.edu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10월 22일(목) ~ 10월 31일(토)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일 갈멜산(미국) 신년경사예배 1~10일 갈멜산(미국) 신년축회기도성회 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갈멜교회(인천)복음화 8일 평화교회(미국)복음화 11~13일 (평화)교회(미국)복음화 15일 (평화)교회(미국)복음화 18일 (평화)교회(미국)복음화 22~23일 LA 미주 갈멜산(미국)	1월 1일 LA 주님의 영교회(송문수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시몬스교회(미국)복음화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23~25일 동촌교회(미국)복음화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정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신명수련회 (김지연총장) 9~11일 (평화)대학(미국)연회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미국)복음화 29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6~8일 온인 신세계교회(문홍우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온인 시민교회(이상민목사) 23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제철 26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27~29일 화경교회(이재우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남비전교회(오영목사) 31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1월 4일 갈멜산 강회(미국)연회(강화) 8일~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일~17일 온양장리교회(노경현목사) 21일 예수비전교회(이재우목사) 22일~24일 (평화)남수련회(미국)강화 25일~30일 LA 미주 갈멜산(미국)	6월 18일 LA 미주 갈멜산(미국) 19일 청운교회(강대석목사) 20일~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27일~29일 천안시(미국)복음화 30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3월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6월 14일~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월 17일~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30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6월 14일~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21일 풍서교회(박정홍목사)	4월 4일~7일 성동중교회(이연호목사) 11월~14일 임실교회(김교목사) 19일~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31일 LA 미주 갈멜산(미국)	1월 7일 LA 미주 갈멜산(미국) 8월~11월 성상교회(이호연목사) 15일 대한교회(윤영민목사) 18일~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대한교회(정순진목사) 29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30일 강서교회(전종남목사)	1월 7일~10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3일~16일 GST 미션리서치(캠퍼스) 27일 신묘철 철야(미국)GST 28일~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목회서신

성경적 자살관과 오해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자살을 세계 1위가 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죽음, 곧 자살에 대해 세상의 눈길은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차가운 눈길마저도 2달도 안 되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었고, 또 어떻게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그런 말은 일반연구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잘못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자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살에 대

해 명확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자살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오해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살의 사례들만 열거될 뿐, 자살을 심판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비멜렉(삿9:54), 삼손(삿16:28-31), 사울(삼상31:1-6), 사울의 병기 가진 자(대상10:5), 아히도벨(삼하17:23), 시므리(왕상16:18), 유다(마27:3-5) 등 총 7명의 자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경이 이들의 행위를 소개할 뿐, 그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자살을 살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살이란 살해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삼았을 뿐,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에 대한 율법적 판단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굳이 자살을 따로 구분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성경은 마치 자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단지 성경에 언급된 자살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소관이 아

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살을 도덕적 책임(잘못)으로 격하시키므로, 자살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자살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특정 집단, 연령의 행동유형도, 우울한 사람의 선택도, 충동적 행위도, 비신앙인의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은 누구나, 우울에서 벗어난 시기에도, 계획적으로 신앙인들도 할 수 있는 보편적 행위입니다. 자살은 살인행위이며, 살인행위는 인간의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2)자살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그 책임있게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살인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자살한 사람 자신에게 100%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자인 놀만 라이트는 자살에 대한 오해를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자살과 자살 미수는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정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시도하는 것인 반면, 자살미수(죽지 않을 만큼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는 살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절박한 도움의 요청이므로, 자살과 자살미수는 같이 아니합니다. 2. 자살은 특별한 계층 사람들의 문제이다. 자살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 인종, 연령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기도는 대부분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한 사람 중 약80%는 행동에 옮기기 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도움을 호소하는 울부짖음으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고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고백은 무시를 당합니다. 4.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영원히 그럴 것이다. 상담과 치유사역을 통해 자살시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5. 자살은 유전적이며 집단 내력이다. 자살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선례는 환경적인 영향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는다.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심리적, 감정적, 뒤틀림을 경험하며, 누구나 자살의 위협을 받습니다. 7. 자살과 우울은 동의어다. 우울이 자살할 생각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살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8. 자살 위기 이후 상태가 호전됐다면, 자살 위험은 끝난 것이다. 상태가 호전됐다면 자살 위험은 완화되었지만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태가 악화된다면 언제나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21-24일 'Go Beyond' 주제 2015 미주청년학생수련회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남가주지역의 1.5세와 2세 영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려왔던 미주청년학생수련회 하이어콜링 컨퍼런스(HCC)가 올해는 'Go Beyond'(요14:12) 주제로 오는 12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500 Hotel Circle North San Diego, CA)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1시 KCCC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HCC 준비위원회 및 미주성서화 운동본부, Nexgen Pastors Fellowship의 공동주최와 KCCC USA와 2015 HCC 준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아침과 저녁 대 집회, 8번의 파워선택 특강, 미션페스티벌, 금식기도회, 전도훈련 및 현장실습, 하이스쿨 모임, 영어권목회자 모임, 스포셜 콘서트 등으로 진행되며 학교 및 선교단체들의 부스도 설치된다. 강사로는 덕 필즈(Executive Director, Home World's Center), 유진조 목사(체스트교회 담임), 헤럴드 김 목사(크라이스트센터 담임), 션 가든 목사(We Are Church), 그리고 김동환 목사(KCCC USA National Director)가 선다. HCC 스태프로 섬기고 있는 이영복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관계가 회복돼 컨퍼런스를 마친 후 각



KCCC회관에서 열린 2015하이어콜링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자의 삶속으로 돌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콥스 전도사는 "학생들 중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많다. 그러나 학생들이 졸업 후 80%가 교회를 이탈한다. 나 역시 이탈자 중 한명이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하며, "한인 교회중 상당수가 소규모의 교회이며, 젊은이들을 위한 컨퍼런스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HCC는 작은 교회가 연합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적합하다. 많은 학생들이 HCC에 참여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CCC 박종술 목사는 "지난해에는 1,200명의 학생들이 HCC에 참석했다. 아쉬운 점은 작년에는 컨퍼런스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러 정황상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HCC에서 하

고자 했던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장소는 샌디에이고 지역 바닷가나 쇼핑몰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HCC는 작년의 경우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이 함께 소그룹을 이루어 진행했는데, 세대차이와 관심도의 차이로 인해 원활한 팀 활동이 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올해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나누어 소그룹을 배정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회리더들을 배제한 채 HCC가 진행됐는데, 컨퍼런스 이후 참석한 학생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이 포착돼 올해는 교회에서 리더들을 그룹리더로 적극 세워 컨퍼런스를 마친 후 각자 교회로 흩어진 후에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용이하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HCC 등록 및 문의는 (213)389-5222, la2015@highercalling.org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APU 제65회 연례 기금모금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APU 제65회 연례 기금모금 축제 투병 중인 존 윌레스 총장 위한 기도도

아주사피서피대학교(APU 총장 대행 데이비드 빅스비 박사)가 주최한 제 65회 연례기금모금축제가 23일 오후 6시 본교 웨스트캠퍼스에 위치한 Richard and Vivian Felix Event Center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인동문들을 비롯

한 1천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연례기금모금축제는 본교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세 명의 피아니스트들의 협연으로 시작됐다. 연주가 끝난 후 폐기 캠프 본교 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맥스 윌드 동문회장인 기도한 후 저녁만찬 시간을 가졌다. 이어 린지 르펠드 사장(Visiting Angels Senopr Homecare), 스티븐 보트 선수(메이저리그 야구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포수), 그리고 마가리타 라미레스(Fulbright Scholar) 등 동문들이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이날 데이비드 빅스비 총장대행이 APU와 APU 동문, 그리고 현재 암투병 중인 존 윌레스 총장을 위한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으며 본교 연합합창단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망각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날은 성인 곧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꾸어 바벨론 종교의 혼합된 로마카톨릭교회 안에서 지켜지던 풍습을 대중문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일을 대중의 뇌리 속에서 지우고자 오히려 세상적인 문화 보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원문에는 순례자의 마지막 여정인 천구의 문 앞에서 순례자를 가로막는 자가 있으니 바로 캐톨릭 "교황"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이 대목이 삭제되어 천국입성을 막는 교황의 존재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결코 교황을 "평화의 사도"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로 묘사했습니다. 교회 개혁자들 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스펄전(Charles Spurgeon) 목사나 로이드 존스(Martin Lloyd-Jones)도 분명히 그들의 책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성인의 날 속에 있는 다신교적인 정령숭배적 뿌리를 가진 할로윈의 의미와 근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대중문화(영화, 소설, 음악, 연극)를 통해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할로윈 문화는 사단교의 영향이 대중문화 속에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문화의 연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코흐박사(Kurt Koch)는 그의 책 사단의 '진술전략'(Occult ABC)에서 1,000가지 이상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사단이 어떻게 기독교를 파괴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신학대학의 알버트 몰러 총장은 "오컬트에 매료되면서 미국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세속주의에 빠졌다. 범인이 이미 미국의 공공시설에서 모든 기독교적 문구를 제거하는 동안 그 빈 자리에 악마에 대한 관심, 이교주의, 새로운 주술로 채워지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5. 하나의 제안 할로윈을 지나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늘 깨어서 악령의 실재를 의식하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력에서 할로윈을 뺄 수는 없습니다. 할로윈은 미국에서 거액이 오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할로윈의 현대적 개념은 할리우드 영화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로윈이라는 장치가 세상을 전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할로윈은 매우 드라마틱한 잠재력을 지닌 휴일이기 때문에, 할로윈의 기원에서 어두운 멜로 드라마적 주제를 가져다 영화의 언어로 변형시키는 일이 할리우드의 비중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수입은 엄청난 것이며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큰 비즈니스에 속합니다. 이런 요소들에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와 자녀들이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교회개혁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경적 교리의 순수성을 교회가 회복해야 하며 마귀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개혁을 위해 계속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어른들이 문을 열어 마귀를 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낯은 교회에서 모여 교회개혁에 걸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집에 있다면 전도지를 과자봉지에 싸서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자 가정에서 파티를 열어 성경적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장합동 해외총회 가주노회가 주최한 최근호 목사 안수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장합동해외총회 가주노회 제8차 정기노회 최근호 목사안수식, 정태용 강도사인허식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가주노회(노회장 김영렬 목사)는 최근호 강도사 목사안수식과 정태용 전도사 강도사 인허식을 24일 오후5시 미주총신대학교(총장 김근수 박사) 예배실에서 가졌다. 최근호 목사는 "부족한 저에게 목사의 직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렬 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강도사 인허 및 목사 안수식은 조하림 부노회장이 기도했으며 노회장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행20: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목사안수와 강도사 인허 순서를 가졌다. 안수식은 이날 임직 받은 최근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안수식전에 열린 제8회 정기노회는 부노회장 조하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위장우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김영렬 목사가 '교회 파수꾼'(행20:28-3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오진형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서 회무처리시간을 가졌으며 목사안수식 이후에 폐회예배를 드린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시카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북한 실정 반영 영화 "겨울나비" 상영

NIM(대표 임현석 목사)이 주최하는 시카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지난 26일 오후 8시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영화 "겨울나비"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담과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다. "겨울나비"는 UN 인권이사회에 초청을 받아 제네바에서 상영될 정

도로 북한 인권 문제와 식량난 등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탈북자 1호 감독인 북한 황해북도 출신 김규민 감독이 북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자유의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되는 지속된 북한의 가슴 아픈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기사제공: NIM)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베데스다교회 헌당예배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오상연 목사) 헌당예배가 11월 8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주소는 208-01 43rd Ave, Bayside, NY 11361.

▲문의: (718)478-8900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는 어려운 한인 목회자를 돕고자 목회자 자녀장학금을 수여한다. 지원자격은 NY, NJ, PA, CT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자녀로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중인 자로 선정 인원은 8명, 장학금 지급액은 일인당 1,500달러. 구비서류는 장학금 신청서(Application Form: www.njchodaed.net), 자기 소개서(Essay), 재적증명서(Transcript, Tuition Bill or Certificate of Enrollment), 부모님 목회사역 소개서(사역주소, 기간 및 간단한 내용 설명), 시무증빙서류(현재 발행 되는 주보, etc), Financial Aid Award Letter from enrolled school(most current). 접수 마감일은 11월 15일(주)이며 이메일(chodaescholarships@gmail.com, Attn: Chodaed Scholarship Committee)로 보내면 된다.

▲문의: nyackors@gmail.com 문인학 집사

스마트폰 중급반 코스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중급반 코스(45기)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3회 열린다. 시간은 오후 2시 20분-4시. 강의 주제는 '스마트폰과 실용컴퓨터 활용법'이며 수강자격은 스마트폰 중급반 수료자로서 실생활에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4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또 스마트폰 무료 강좌 토요일 왕초보반과 15분 상담실이 신규 개설됐다. 왕초보반은 10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1회 강의하며 오전 11시-12시 20분(수강료 무료, 1회 등록비 15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 선교후원). 상담실은 개인당 15분간 무료 상담한다. 선착순으로 접수 예약하며 뉴욕기독교방송 선교후원자를 우선한다.

▲문의: (347)538-1587

조국 역사 바로 알기 모임

조국의 역사를 바로 알려 국가의 평화통일과 정체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모임이 11월 5일(목) 오후 8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장 정재건),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김남수 목사), 뉴욕지역 한인단체들이 공동 주최한다. 오후 7시부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718)679-7721

청암크리스천아카데미 후원 골프대회

청암크리스천아카데미(원장 홍상실 목사) 창립 24주년을 맞아 후원 골프대회가 11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뉴욕시 베이사이드에 있는 클리버 골프 코스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일인당 120달러. 챔피언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 (917)412-0390

분노조절 뉴욕세미나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분노조절 뉴욕세미나가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개최된다. 수강료는 일인당 120달러.

▲문의: (201)242-4422



복음주의형제회가 주최한 가을 뉴욕 세미나 강사진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2015 가을 새벽부흥회'에서 말씀을 마친 후 김성국 목사가 교인들을 안수하고 있다.

“두나미스,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제 퀸즈장로교회 '2015 가을 새벽부흥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을 걸쳐 '2015 가을 새벽부흥회'를 가졌다. “두나미스,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제로 담임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세상이 점점 침몰하고 있는 지금, 세상을 건질 하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할 강력한 도구이다. 기도가 살아나면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살릴 것이다.”

이제 개인적, 이기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잠자리에 일어나 기도의 무릎을 꿇자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기”(고후10:4-6), “능력있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대상 26:4-9), “보혈의 능력”(히10:19-25),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눅 9:1-6), “이 능력은 꼭 있어야 합니다”(딤후3:1-5), “오늘의 엘리야는 그 어디에?”(눅1:13-17)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부회장 2파전 1표 차로 김홍석 목사 당선

뉴욕교협 41회 총회, 집행부 백두한라기도회 참가비 반환

(1면에서 계속)

이번 총회 관심의 초점이었던 집행부의 재정 감사보고는 △임원활동비 지출은 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며 사용 명도와 출처, 일시가 기입된 영수증 제출 △임원 공식 활동비가 아닌 목사회 백두한라기도회 참가비 지출은 전액 반환 △교협협행사와 관련된 후원금은 교협 입금 후 사용 △재정사용에 문제가 있을 시 6인의 사인권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등의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마무리했다.

회계보고에서는 수입 428,887.61달러, 지출 412,608.87달러, 이월금은 16,278.74달러로 보고했다.

또 총회 임원선거는 부회장 이종명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박희소 목사의 제안에 따라 박수로 추대했다.

경선이었던 부회장 선거는 김홍석 목사(기호 1번, 뉴욕늘기쁜교회 담임)와 이만호 목사(기호 2번,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가 각각 소견 발표를 하고 투표에 들어가 총출석인원 195명(중경회장 10명, 목



뉴욕교협 41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거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있다.

사총대 185명, 평신도총대 62명) 중 김홍석 목사 98표, 이만호 목사 97표로 과반수를 얻은 김홍석 목사가 선출됐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했다는 제보에 따라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선관위(위원장 이병홍 목사)의 발표에 총대들이 반발하며 1시간 넘은 논란이 진행되자 많은 총대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왕좌왕하던 선관위는 결국 재투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무기명으로 물어 찬성 68표, 반대 95표로 재투표 없이 김홍석 목사 당선을 확정했다. 또 후보가 없었던 감사 2명은 선

관위에서 울린 김상태 목사(유임, 뉴욕주님의교회)와 김기호 목사(뉴욕주양장로교회)가 그대로 선임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명 목사 인도로 기도 이상호 집사, 성경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부회장 3파전, 오태환, 문석호, 김상태 목사

뉴욕목사회 제43회기 정부회장 후보등록 마감 회장입후보엔 부회장 김영환 목사 등록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 제 43회기 회장 후보에 부회장 김영환 목사(뉴욕효성침례교회 담임), 부회장 오태환, 문석호, 김상태 목사가 등록했다.



김영환 목사



오태환 목사



문석호 목사



김상태 목사

태 목사(뉴욕주님의교회 담임)가 등록했다. 이로써 김영환 목사는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했으며 부회장 후보는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목사회는 23일 정기총회에서 정부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총회에 앞서

11월 9일(월) 마지막 임실행위원회를 갖는다.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는 23일(월) 오전 10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리게 된다. (유원정 기자)

'후원자의 밤' 준비...새 아동후원국 코트디부아르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10월 정기모임이 지난 22일 뉴욕은총장로교회(담임 오태환 목사)에서 열려 11월 후원자의 밤과 콜롬비아 후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장 전희수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시작된 회의에서 사무총장 김영환 목사는 △2015년 목표 아동결연 배가(해)의 135명, 북한 총 141명)과 △새로운 아동결연 국가로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선정 △오병이어 원고 마감에 대해 총무 보고 했다.

'후원자의 밤' 행사 준비위원장 박진하 목사는 행사를 위해 기도와 후원, 홍보를 부탁하며 준비된 초대장을 참석자들이 나눠주고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또 동 행사를 위해 기독교방송국(KCBN, CBSN)에서 매일 2-3회에 걸쳐 홍보방송이 나가게 된다고 보고했다.

또, 11월 후원자의 밤 행사를 통해 스콜롬비아 모기장 사업 및 물탱크 교체 사업을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오태환 목사(국내선교국장)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자문위원), 말씀 권케더린 목사, 통성함심기도, 축도 박마이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케더린 목사는 “신앙과 구제”(

마25:31-4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설교 중 마지막 부분”이라며 “양과 염소도 모두 작은 자를 섬겼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했는가”라고 말하고 “기도와 금식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셨다. 드러내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아대책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심기도는 설교 후 권케더린 목사 인도로 1.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2. 해외 및 북한결연아동들을 위하여 3. 오병이어 7호 발간을 위하여 4. 11월 29일 후원자의 밤 행사를 위하여 5.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선교사, 엘살바도르에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제목으로 기도했다.

한편 '후원자의 밤' 행사준비위원회가 11월 13일(금)과 27일(금) 회장 전희수 목사 사택에서 있게 된다.

후원자의 밤은 11월 29일(주) 저녁 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교회에 대한 이슬람의 도전과 기독교의 대비”

복음주의형제회 주최 가을 뉴욕 세미나

“교회에 대한 이슬람의 도전과 기독교의 대비”라는 주제로 지난 22일과 23일 걸쳐 복음주의형제회 주최 가을 뉴욕 세미나가 열렸다.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허길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돼 최승호 목사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정태윤 목사가 “이슬람의 도전과 교회의 대비”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첫날 오후 강의에서 정태윤 목사는 “이슬람은 사탄이 쳐 놓은 복음의 방해고물이며 사실과 다른 포장에 퍼져있고, 경제적 지원으로 문화적 공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슬람의 정신은 첫째 라자아(Razzia, 암살자), 타케이야(Taqiyya, 통치원리), 아사비야(Asabiyya, 아랍의 마음-사리아법)로 이슬람은 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로 땅을 다스리는 것은 칼이며 전 세계를 전쟁의 세계와 평화의 세계로 나누고 전 세계가 비무슬람에서 무슬림 세계로 변화될 때까지 지하드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목사는 “이슬람의 정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경을 알고 성경적인 구원관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 이 시대는 진리를 모른채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조남민 목사가 “로마카톨릭의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다”, 정이철 목사가 “현대교회 찬양의 위험성과 필요성”, 김재호 목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이 세미나는 기독교저널대표 임성

식 목사)이 주최했다. (유원정 기자)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 취득
-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인수 (남,여) 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 수 있다.
-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DYNAMICS 다이내믹스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턴내내 무료매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남가주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종합우승 GMU, 준우승 미주장신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 체육대회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 체육대회가 24일 오전 9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대회는 축구, 배구, 피구, 족구, 릴레이 등 5종목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영예의 종합우승에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준우승에 미주장신대학교가 차지했다. 이날 모인 각 학교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으며 경기 중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각 학교간 친교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이번 체육대회에 참가학교는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김광신 박사), 국제개혁대학교 등이 다, (박준호 기자)



한기홍 목사의 저서 '오늘을 만족하라'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은혜한인교회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예배가 마친후 참석자들에게 책을 증정하고 있는 모습

30년 걸려 쓴 "오늘을 만족하라" 한기홍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은혜한인교회 담임인 한기홍 목사의 신앙간증과 선교열정을 담은 책 '오늘을 만족하라'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22일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기홍 목사는 "책이 나오기까지 30년 걸렸다.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해있다.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만족이 있어야 한다. 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서 삶이 되어진다면 만족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샌디에고갈보리교회에서 목회하던 이야기, 은혜한인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사역하던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위기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나보니 행복한 때였다. 영적 격전지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다. 행복한건 소유문제가 아닌 존재문제이다. 나 자신이 선택받은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 그 존재에 대한 확신 가질 때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나누고자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준호 목사(은혜한인교회 목회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영수 장로(본 교회 문서출판국장)가 대표 기도했으며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빌4:10-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바울 인도선교사(전 인도한인선교사협의회 부회장)와 본 교회 권현석 장로(선교구 인터넷 사역)가 영상으로 한기홍 목사의 저서를 읽은 소감을 밝혔으며, 강순영 목사(자마대표), 김기동 목사(OC교회회장) 그리고 이서 목사(GMI국제총회 총회장)가 축사했다. 이어서 한기홍 목사가 출판소감 및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용덕 목사(OC교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오늘을 만족하라'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은혜한인교회에서 추진하는 은퇴선교관 건립에 사용된다. (박준호 기자)

'회복과 새생명' 주제 좋은마을교회 가을전도부흥회, 감사 최창수 목사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용인중부교회 최창수 목사를 초청, 가을전도부흥회를 열었다. 새생명전도축제를 앞두고 '회복과 새생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도부흥회는 '네가 어디 있느냐?'(창3:1-9), '전도인의 자세'(마28:18-20), '성령의 능력'(행2:1-4), '에덴을 회복하라'(사51:1-3), '명작인생, 명품성도'(빌3:12-16)의 제목으로 시간마다 한 생명의 소중함과 전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25일 주일예배를 통해 최창수 목사는 "참 크리스천들은 하루하루

명작을 남기고 명품 신자가 되어야 한다. 명품 신자가 되기 위해선 △진식인이 아닌 지혜자로 살고 △경영자가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며 △유능한 자가 되지 말고 유용한 자가 되며 △선민의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구속의식을 갖고 △신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좋은마을교회는 11월 1일을 제3회 새생명전도축제로 정하고 영혼구원을 위해 특별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같은 날 김수환 집사 장립식도 갖는다. (이성자 기자)



좋은마을교회 전도부흥회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창수 목사



KFAM이 주최하는 제5회 성인분노 및 스트레스 조절세미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세미나 강사인 풀운 카운슬러(사진 오른쪽)이 세미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왼쪽은 세미나 강사 안현미 카운슬러)

제5회 성인분노/스트레스 조절세미나 KFAM 주최 11월 7일 강사 안현미, 풀운 카운슬러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가 주최하는 제5회 성인분노/스트레스 조절세미나가 오는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KFAM강의실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KFAM의 안현미, 풀운 카운슬러이며 세미나는 분노의 정의와 구성요소, 분노 조절 혹은 지연 방법, 분노와 스트레스,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안현미 카운슬러는 "40대일 경우 분노표출방법이 서툴다. 분노의 상황이 오면 되면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작용이 안된다"며 "많은 부분에 있어 실제적으로 어느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노에 대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분노로 인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풀운 카운슬러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한 표현부족"이라 말했다. KFAM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교재와 간식제공 외에 특별히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마련된 만큼 젊은 부모들이 많이 참여해 자녀교육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맞이하게 될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에 대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김아림 매니저 (213)235-4848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캠코랄 10회 정기연주회

캠코랄(KAM Chorale 지휘 이수정 집사) 제10회 정기연주회가 11월 8일(주일) 오후 7시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18800 Norwalk Blvd, Artesia, CA)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소망소사이어터와 제임스월드와이드 후원으로 생생살리기 아프리카 우물파기 후원음악회로 열리며 바리톤 장상근, 재즈보컬리스트 제이미 리, 그리고 CCM가수 허훈 씨가 찬조출연한다. ▲문의: (562)319-9800, (714)514-9906

빛과소금의교회 이전 및 추계집회

빛과소금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이전 및 추계집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주)까지 열린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집회 강사는 장영철 목사(예수제자선교회 회장)이며 일정은 30일 저녁 7시30분, 31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30분, 1일(주) 오전 11시, 오후 2시. ▲문의: (310)749-4756

APS 목회자 컨퍼런스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국어석사프로그램(APS 디렉터 변명태 박사)이 주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11월 3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김한호 목사(열반인 베델한인교회),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등록비는 30달러(점심식사 포함)이며 10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문의: (626)857-2200

박성규 목사 '성역30년 기념설교집 출판감사 예배'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의 '성역 30년 기념설교집 출판감사 예배'가 오는 11월 8일(주) 오전 11시30분 본 교회에서 열린다. 출판감사예배에서는 장신대 총장을 지낸 서정운 목사가 설교를 맡고 김종훈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문의: (310)325-4020

라크마 남가주 순회공연

라크마(단장 최승호, 지휘 윤임상 교수)는 남가주 순회공연을 갖는다. 일정은 11월 4일(수) 오후 7시30분 열반인베델교회(담임 김한호 목사), 11일 오후 7시30분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이다. ▲문의: info@thelakma.org

주님의영광교회 심령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2015 심령부흥회를 '제자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30일(금)부터 11월 1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장순직 목사(원주 문막대리교회 담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이며 일정은 30일(금)과 31일(토) 저녁 7시30분, 11월 1일(주) 1부-3부예배. ▲문의: (213)749-4500

소망소사이어터 한미상속법 법률세미나

소망소사이어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10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한미상속법에 관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약 60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한국의 대가정법률복지 상담원 원장인 양정자 박사와 오랜 지카운티 한인변호사회 회장 박영선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한미 양국의 상속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상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상속이 이루어질 때 주의해



야 할 점, 유언서의 효용성, 한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터)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경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10: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inglivingchurch.com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2:00(영성) 금요성경회: 오후 7:30 수-금요일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san.com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559-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주일 학교: 오전 11:00 EM: 대림: 오후 1:30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www.nachimbu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월-일 예배: 오후 1:20 영어(영성+KO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성경회: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한 사랑의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745-7728 (전혀 팩스 없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FB LA, CA 90033	드림 교회  담임목사 :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Tel: (213)245-409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대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jca.org Tel: (213)381-2535 /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요성경회: 오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일일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역: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Rd., 2F-B, L.A., CA 90020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 요 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토)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00 Tel: (213)380-0071, Cell: (213)215-82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열반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유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i.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scic.org	주님의 제자교회 (힐링캠프 기도원)  담임목사 : 이선자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제자기도: 오후 7:30(월-금) 주일예배: 오전 11:00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le@gmail.com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목요일기도: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토렌스온교회  담임목사 : 김백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래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2009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세계감리교협 차기 회장 박종천 감신대 총장 “130년 한국감리교에 주신 하나님 큰 선물”

박종천(61) 감리교신학대 총장이 세계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제27대 세계감리교협의회(WMC) 회장에 선출됐다. WMC는 132개국 80여개 교단이 소속된 전 세계 8500만 감리교인의 연합기구로 아시아인이 WMC 회장에 선출된 것은 박 총장이 처음이다. 그는 WMC가 내년 9월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하는 세계감리교대회 이후부터 임기 5년의 WMC 회장직을 수행한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감신대에서 만난 박 총장은 “한국 감리교 130년 역사를 맞은 올해 하나님이 한국에 큰 선물을 주셨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WMC 회장 선출은 개인의 영광이기 이전에 한국 감리교의 쾌거”라며 “큰 짐을 짊어지게 돼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박 총장은 “저 역시 분단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WMC 회장으로 서 평화 문제에 집중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에도 기여하고 싶다”면서 “남북 평화는 한반도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WMC 회장 선출을 한국교회의 공으로 돌렸다. “저의 역량이 뛰어나 WMC 회장에 선출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WMC가 다른 점들에 주목했을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 감리교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한 역사, 선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공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겠죠. 아울러 중국 선교에 이웃 국가인 한국이 앞장서 달라는 부탁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박 총장은 WMC 회장으로 추진할 사업들도 하나씩 열거했다. 회장 취임까지는 10개월 넘게 남았지만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생생하면서 구체적이었다. 박 총장은 “임기가 시작되면 감리교 신앙의 핵심을 담은 ‘포켓북’을 만들어 전 세계 감리교회에 보급할 것”이라며 “세계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세계전도대학원을 감신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MC는 188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감리교대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열기가 가열되던 시기였다. WMC는 이때부터 세계감리교대회 등을 개최하며 세계 감리교회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회장직은 영국과 미국 출신 목회자나 신학자가 돌아가며 맡았다.

다른 나라의 목회자나 신학자가 WMC 회장에 오른 건 1986년부터

다. 지난 20년간 WMC 회장은 아프리카 나미의 목회자가 돌아가며 역임했다. 현재 회장은 브라질의 파울로 로크만 감독이다.

“제3세계에서 WMC 회장이 배출되고 있는 건 세계 교회의 축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기독교의 축은 단연 한국이겠죠. 한국교회는 전쟁 기간으로 고통 받는 제3세계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 총장이 WMC와 인연을 맺은 건 9년 전부터다. 박 총장은 2006년부터 WMC 신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학교육위원회를 이끌며 보여준 활동 덕분인지 박 총장은 지난해 열린 차기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4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그는 인선위원 14명 중 10명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박 총장은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개표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많이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총북 제천 출신으로 서울 대광중·고를 나와 감신대, 미국 예모리대 등에서 수학했다. 1986년부터 감신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2년 6월 이 대학 제13대 총장에 선출됐다.

“침체위기교회 ‘십자가 신앙’ 으로 깨워라” 제8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백석대 백석정신아카데미는 26일 ‘제8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와 하나 된 교계를 위해선 십자가 신앙을 견고히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진 고양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백석대 학원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난 18년간 펼쳐온 십자가 중심의 역동적인 교회 사역을 제시했다.

정 목사는 “한국교회가 부흥 이후 관리형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파르트가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사역을 하다가 망해도 주님의 일은 실패가 없다’는 신념 아래 교회 예산의 51%를 투입해 노인복지센터, 새터민 돌봄 등 평신도가 주도하는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좌우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말고 사회·문화신교를 통해 복음의 꽃을 피워야 한다”면서 “특히 교계 연합사업의 희망으로 떠오른 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교단이 연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도 “교회의 존재목적은 영혼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있다”며 “지금은 십자가 신앙,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울 때다. 특히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한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 교회마다 기독교교를 세우고 성경과 역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교단 간 차이는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만 문제가 된다”면서 “따라서 마음이 통하는 교단이라면 조금씩 양보하고 강단 교류를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환 대신대 총장은 “교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벽이 고착되고 있다”면서 “예장대신처럼 강력한 연합운동을 펼친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사변화되는 신학 때문에 교회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잃고 침체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신학사상이다. 백석학원을 설립한 장종현 예장대신 총회장이 2003년 처음 주창했으며, ‘신학은 학문이 아니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사상이다.

이날 장 총회장은 “강단에선 더 이상 세사적인 지식과 논리가 설과 대신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다시 선포돼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세계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고세진 박사는 복음주의 사회 참여 노선에 선 교회들의 사회봉사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 보기 위하여 군포제일교회와 세운 사단법인 성민원, 그리고 명성교회를 선정하였다.

고 박사는 권태진 목사의 아비목회 신학과 군포제일교회가 세운 사단법인 성민원의 복지사역을 노인 복지 영역, 장애인 복지 영역, 지역 복지 영역, 아동청소년복지영역으로 소개하며, 성민원의 사역을 통하여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민원에서 하는 일들 중 노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 무력자를 돕는 것은 교세확장이나 교회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성민원의 사역들은 지역 사회, 더 나아가 한국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참여는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적인 사회 정의적 사회 참여나 복음주의적 사회봉사가 상호보완적으로 연합하면 한국 사회가 더 균형 있게 발전하고 더 좋은 사회가 구현되며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발제를 마쳤다.

“비혼·동거 가정 차별금지, 출산을 해법으로 부적절” 교회언론회 “근본문제 도외시 무분별 혼외아 발생” 비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2일 ‘비혼·동거 가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출산을

“국가관 왜곡·편향 안된다...교과서 논쟁, 미래 역사정립 기회로” 기독교 공대위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침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역사교과서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역사적 사실과 국가관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발전과정을 올바르게 기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교과서 정책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사 교과서, 잘못된 역사의 출발’을 제목으로 발표한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현행)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해방 후 한국사의 출발점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두고 있는데 여운형은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중경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인민공화국을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임시정부를 계승해 민주국가 건설을 하려 한 송진우에 대한 내용은 역사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며 “해방 이후 소련과 북한의 남한 공산화 전략에 대응해 이승만 박사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했지만 현행 교과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가 건국에 기여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유교적 봉건주의를 극복한 한국기독교는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해방 이후 일관되게 나라의 건국을 지지했다”며 “한국기독교는 ‘대한민국 건국세력’으로 한국사에서 긍정하게 평가받아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목으로 발표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현재 역사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유와 창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심어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친일·독재의 낙인을 찍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땅이고 대한민국은 친일·친미·기회주의의 땅이라는 식의 맥락이 교과서에 깊이 박혀 있는 것 역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사고 획일화 초래”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7명, 반대 성명 발표

장로회신학대 역사신학 교수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희국 서원모 박경수 안교성 이치만 김석주 손은실 교수 등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7명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개신교는 불의와 위선에 맞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며 진리를 수호했고 개혁을 이뤘다”며 “따라서 국정화에 대해 우

리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바로잡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부터 오늘까지 인류의 발전, 특히 학문의 발전이 다양한 사고의 개방과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힘입어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정화는 사고의 획일화를 초래할 전근대적인 조치로 역사발전

제1회 호산나선교대상 수상자 선정 학술목회복지선교문화 5개 부문

호산나선교회(대표회장 박종구 목사)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호산나선교대상을 제정하고 지난 14일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1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학술 부문 서철원 박사(전 총신대 부총장) △목회 부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 △복지 부문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담임) △선교 부문 김영근 목사(방파선교회 총무) △문화 부문 이형규 장로(쿤란출판사 대표) 등이다.

서철원 박사는 조직신학의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그의 저작 ‘교리사’의 학문적 성과는 높이 평가받

고 있으며, 교의신학 시리즈를 비롯한 저작들은 성서적 개혁신학의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소강석 목사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장교회 및 교회의 외향적 사역을 펼쳐왔으며, 생명나무프로그램을 비롯해 활발한 저술활동과 국내외 연합운동을 섬기고 있다.

김동엽 목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섬김의 목회철학을 사회복지에 적용하여 여러 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는 한편, 복지목회의 이론과 실재를 제공하는 복지목회컨퍼런스를 주관해오고 있다.

김영근 목사는 지난 40년간 방과

예장대신, 재정·기구통합 등 후속처리 ‘속도’ 내달 장로연합회 통합총회 개최...잔류측, 속개총회서 예산 등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지난 9월 총회에서 교단통합을 선언한 이후 후속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구 예장백석측과 대신측은 지난 1일 총회 재정을 합침으며 비영리법인 대표자를 장종현 총회장으로 변경했다. 또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에 ‘예장대신’으로 교단명도 변경·요청했다. 홍호수 전 총무와 임원, 총회본부 직원 등 구 대신측 인사들은 서울 서초구 방배로 총회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양측 산하기관의 경우 군목단은 통합했으며 다음달 전국장로연합회가 통합총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초까지 상비부서 조직이 마무리되면 2~3일 경기도 화성 제부도 새중앙교회 수양관에서 상비부 임원과 전문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다음달

2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단통합에는 안양새중앙교회(박종식 목사) 한국중앙교회(임석순 목사) 청파중앙교회(김항우 목사) 등 구 대신측의 상징적 교회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예장대신 잔류측 총회(총회장 박종근 목사)는 지난 19~21일 경기도 포천 내촌면 베이스타운에서 목사와 장로 총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속개총회를 개최했다. 조강신 총무는 “1743개 교회 중 714개 교회가 잔류했고 900여 교회가 교단통합에 참여했으며 150여 교회가 중립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잔류측 총회는 전년 대비 61% 삭감된 3억15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제49회기 때 내리린 직무정지와 체증 면직 행정심판 결정 등 모두 취소했다. 총회장 부총회장 등 임원 임후보비를 없애고 총대가 아닌 평신도도 총회 독립기관에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문호를 열기로 했다.

령화 사회 해법을 이유로 최근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 등의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혼외아를 얻어내겠다는 발

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오늘의 역사교과서 논쟁을 미래를 위한 역사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며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촉보를 들춰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를 통해 국민이 동의하는 역사를 정립해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취지를 밝힌 공대위 본부장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과 본질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역사는 역사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르쳐 자긍심을 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수럽게 여기는 역사 교육이라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총총)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사신학자들이 전문위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병희 한교연 대표회장, 임기호 한기총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선의 해결책은 다양한 의견 개진을 격려하고 비판을 통한 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운동도 현직 교사 10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교육과정에 개입하게 될 때 교육은 왜곡되기 마련”이라며 “현행 역사교과서가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토론과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교회의 선교정책개발과 행정을 주관해왔으며, 현재 26개국에 75명의 선교사를 후원 관리하고 있다.

이형규 장로는 지난 30년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재단에 크게 기여했다. 출판출판사는 3,500여 종의 기독교 도서를 간행했으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선교지와 학교, 군, 교정기관 등에 기독교 도서를 기증해 왔다. 특히 고영민 박사의 ‘원문번역·주석성경’ 편찬은 한국기독교 130년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심사위원은 김인호 목사, 전병금 목사, 이용규 목사, 홍정이 목사, 김요셉 목사, 강동인 목사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30일 국제전자센터 12층 호산나의 밤 콘서트에서 갖는다.

2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단통합에는 안양새중앙교회(박종식 목사) 한국중앙교회(임석순 목사) 청파중앙교회(김항우 목사) 등 구 대신측의 상징적 교회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예장대신 잔류측 총회(총회장 박종근 목사)는 지난 19~21일 경기도 포천 내촌면 베이스타운에서 목사와 장로 총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속개총회를 개최했다. 조강신 총무는 “1743개 교회 중 714개 교회가 잔류했고 900여 교회가 교단통합에 참여했으며 150여 교회가 중립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잔류측 총회는 전년 대비 61% 삭감된 3억15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제49회기 때 내리린 직무정지와 체증 면직 행정심판 결정 등 모두 취소했다. 총회장 부총회장 등 임원 임후보비를 없애고 총대가 아닌 평신도도 총회 독립기관에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문호를 열기로 했다.

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출산·양육비 과다, 살인적인 교육비, 취업난, 주거난 때문”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화하고 영풍하게 혼외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한국을 비윤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나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

1. 이슬람권의 성도들, 선교사들, 복음전도자들을 위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5-3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1:16).

- 최근 시리아에서 12명의 선교사들이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고 180명의 앗시리아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핍박을 통해 오히려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 무슬림들과 IS 대원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랑과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 다양한 길과 방법으로 이슬람권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셔서, 추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 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거두게 하소서.

2. 무슬림들, 이슬람지도자들, 국가들을 위해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나 내가 어찌 아까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욘4:11).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시33:10-11).

- 한 생명을 천하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슬람 성지순례기간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들을 통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슬람의 허구를 깨닫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복음 듣고 구원 얻게 하소서!

- 러시아의 개입으로 시리아 내전이 러시아와 미군의 대리전이요 중동의 패권 다툼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정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동 정세가 강대국의 의도나 각국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온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지게 하소서.

- 최근 이란 의회가 서방과의 핵 합의안을 승

인한 이후, 이란 군부가 미사일 전력을 잇달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들로 타국에 대한 협박과 전쟁의 도구를 삼지 않도록 막아 주소서.

- 중동과 이슬람권 땅에서 무고한 피흘림과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만행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배후에 역사하는 살인과 어둠이 묶이게 하소서!

- 공포에 눌린 주민들과, 목숨을 걸고 그 땅을 떠나려는 난민들을 지켜 주소서. 가난해진 주민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극단주의 이슬람무장단체의 최고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게 하소서! : IS의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 보코하람의 아부바카르 세카우, 알카에다의 아이만 알 자와히리, 탈레반의 무하마드 만수르, 하마스의 칼리드 마사알, 알사바브의 아마드 우마르가 변화되게 하소서!

3. 이슬람화 저지와 중보기도운동 위해

- 유럽 난민 사태는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슬람에게 유럽 점령의 문을 열어주는 위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밀려오는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게 하소서.

- 각국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소서! 이슬람에 대해 바르게 분별하고 공의로운 법과 정책을 수립하게 하소서. 언론매체가 이슬람의 속성을 바로 알리게 하소서.

-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할랄식품과 무슬림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들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해가 된다는 것을 국민과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 한국 국정원이 대량 살상용 사제폭탄 재료를

밀반입 하려던 외국인들을 적발하고, IS에 가담 하려는 내국인들을 출국금지 했습니다. 이 땅에 테러가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미화된 이슬람의 선전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소서.

- 제2외국어 영역에서 아랍어 선택비율 50%가 넘는 2016년 수능이 형평성 있게 치러지게 하소서. 아랍어 선택이 특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중등학교 아랍어 과목 개설과 원어민 교사 유치 등 이슬람 유입 통로가 되지 않게 하소서.

-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 운동이 전국과 세계로 퍼져가게 하소서!

이슬람권 뉴스

IS, 앗시리아계 기독교인 180명 처형 예고... 의료인 3명 처형

IS가 올해 초 납치하여 억류하고 있던 230명의 앗시리아계 기독교인 중 180명을 처형하겠다고 최근 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주 인터넷을 통해 3명의 인질들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풀어 앉아 있는 동영상을 배포하며 처형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선교사로서 IS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잔류하여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다 순교를 당한 것이다.

IS는 노인 등 몇몇 인질들을 몇 차례에 걸쳐 풀어주었으나 아직도 200명 이상의 인질들이 IS

수중에 남아 있다. IS는 처음에 230명을 모두 풀어주는 조건으로 2300만 달러를 요구했다. 9월에는 인질 석방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고, 몸값은 조금씩 내려갔다. 최근에는 인질 1명당 5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몸값이 빨리 지불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모두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앗시리아계 커뮤니티로서는 도저히 마련 할 수 없는 고액이다. 게다가 IS 내부에는 몸값과 상관없이 인질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강경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IS는 수많은 인질들을 붙잡았고 대부분은 여전히 잡아 놓고 있거나 팔아 넘겼다. 특히 시리아의 기독교계 주민들은 IS의 주요 공격목표이다. 그 결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 되거나 난민이 되어 유랑하고 있다.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 당하거나 거액의 인두세(지즈야)를 강요받고 있다.

(기사제공: 목요기도운동)



IS가 최근 공개한 시리아 기독교 의료선교사들의 처형 모습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시72: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5:1).

- 유럽 난민 사태는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슬람에게 유럽 점령의 문을 열어주는 위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밀려오는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게 하소서.

- 각국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소서! 이슬람에 대해 바르게 분별하고 공의로운 법과 정책을 수립하게 하소서. 언론매체가 이슬람의 속성을 바로 알리게 하소서.

-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할랄식품과 무슬림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들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해가 된다는 것을 국민과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 한국 국정원이 대량 살상용 사제폭탄 재료를

수중에 남아 있다. IS는 처음에 230명을 모두 풀어주는 조건으로 2300만 달러를 요구했다. 9월에는 인질 석방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고, 몸값은 조금씩 내려갔다. 최근에는 인질 1명당 5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몸값이 빨리 지불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모두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앗시리아계 커뮤니티로서는 도저히 마련 할 수 없는 고액이다. 게다가 IS 내부에는 몸값과 상관없이 인질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강경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IS는 수많은 인질들을 붙잡았고 대부분은 여전히 잡아 놓고 있거나 팔아 넘겼다. 특히 시리아의 기독교계 주민들은 IS의 주요 공격목표이다. 그 결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 되거나 난민이 되어 유랑하고 있다.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 당하거나 거액의 인두세(지즈야)를 강요받고 있다.

(기사제공: 목요기도운동)



멕시코

할렐루야!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김재학, 김그레이스 선교사 인사 올립니다.

체감 온도 105가 넘으면서 90도 이상 습기 극성부리는 강렬한 유카탄 반도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바야흐로 매년 이맘때면 오는 열대성 우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 금번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Mexico Quintana roa 주 중원 Playa de Carmen 도시에서 미주 동부지역 한인교회에서 한 선교의 료팀이 오셔서 2개의 큰 반 실내 운동장을 빌려서 장장 5일 동안 내과, 침술과, 약과, 미용, foto, 찬양팀들을 통해 700명의 환자진료와, 2번의 저녁 전도부흥 집회(말씀: 김재학 선교사)를 통해 50명의 결신자와 수많은 멕시코 현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 다가오는 11월 2-5일에 Mexico Yucatan 주 Merida에서 전 교회 현지인 목회자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등록 인원 현재 80명).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EXICO Yucatan에서 김재학, Grace H. Kim 선교사 올림
chriskimel@hotmail.com



구약 출간예정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구(일간목회) 기획 2,106면
이행규(금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히브리어·헬라이어

원문번역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장•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재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지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13)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담임)

11) 다니엘 제11장 전쟁의 이상(남방 왕과 북방 왕들의 전쟁)
“그를 돕고”는 그리스도께서 천사장 미가엘로 하여금 메대 왕 다리오를 도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한 뜻을 의미한다.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상기시킨다.

“세 왕”은 바사의 초대왕은 고레스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BC 530-522), 스메르디스(BC 522), 다리오 허스타스메(BC 522-486)를 가리킨다. 넷째는 에스터 사이에서 아하수메로로 알려진 크세르 크세스(BC 486-484)이다.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BC 336-323)을 가리킨다. 그는 권력의 질정에서 위세를 떨칠 때에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 헬라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에 있던 네 장군들로 분열되었다. 5절에서 남방의 왕은 애굽의 톨레미 1세(BC 323-282)를 가리킨다. “군들 중에 하나”는 수리아의 셀류쿠스 1세인 니카토르(BC 312-280)다.

복잡하게 내려오는 사건들 중에 6절에 남방왕의 딸은 톨레미 2세의 딸인 베레니케다. 또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함은 베레니케가 안티오코스 2세인 데오스(BC 261-246)와 결혼한 사실을 가리킨다. 데오스는 베레니케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인 라오디케와 이혼을

했다. 이때는 톨레미 2세가 죽은 해인 BC 246년은 라오디케가 베레니케와 안티오코스 및 그들의 아들을 살해한 때이기도 하다.

본쪽에서 난자 중에 하나는 베레니케의 남자형제인 톨레미 3세(BC

들을 잃었다(11절).

16절에서 안티오코스 3세는 BC 200년에 애굽을 공격했으나, 남방 왕인 톨레미 5세(BC 203-181)에게 패배 당했다. 안티오코스는 다시금 요세하 된 성읍인 시돈을 정복했다(15절). BC 197년에 이르러서 안티오코스는 영화로운 땅인 팔레스타인을 장악했다.

18절에 나오는 한 대장은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을 말한다. 또 거쳐 넘어지고는 무슨 뜻인가? 몇 해후에 안티오코스 3세는 애굽과 더불어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며,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남편과 결탁하여 애굽과 로마가 동맹을 맺도록 함으로써 소아시아의 해변 도시들을 점령하려는 안티오코스의 계획을 허사로 만들었다.

그 후 안티오코스 3세는 복진을 했으나 BC 190년경에 소아시아의 마그네시야에서 스키피오 장군에

28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안티오코스 4세는 헬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어떤 문화의 언어보다 탁월하다고 믿었으며, 유대교를 배척하였다. 남방인 애굽을 안티오코스 4세는 BC 168년경에 다시 애굽을 점령했다.

“깃대의 배”란 무엇인가? 로마의 집정관 라에라스가 이끄는 전함을 가리킨다. 애굽을 침공한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전함에 의해 격퇴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애굽 원정에 실패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멸했으며, 일부 유대인들도 그의 편이 되어서 율법을 무시했다. 그는 또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멀망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 것이며”는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소에 헬라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단에 돼지를 희생 제물로 올린 사건을 가리킨다(마24:15). 이때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대처

37절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바벨론의 풍요신인 담무스(겔 8:14)를 의미한다. 38절에 “세력의 신”은 누구냐? 제우스의 신을 지칭하는 듯하다. 마지막 때란 종말적인 표현으로서 이 세상의 끝을 말하며, 이 예언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비아는 애굽의 서쪽이요 구스는 애굽의 남쪽이다. 철저히 무절러 죽임을 도둑이라고 한다.

다니엘 11장 45절에서 “거룩한 신”이라고 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한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적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득세할 것이나, 마침내 아말겟돈전쟁으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말씀)에 의해서 파멸당하여 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겔19:20).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다(겔11:15).

12) 다니엘 제12장 (마지막 때 이상)

계6:17).

■ 주님 재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지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 같이 영영토록 비취리라(단12:2-3).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 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며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심은 구약성경 중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해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대목이다(욥 19:25-26; 시16:10; 사26:19)

예수님도 두 부류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신 바 있다(마25:46; 요 5:28-29). 지혜 있는 자는 경건한 자다 공장은 곧 하늘이다 “빛 날 것이요”는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반영될 것이다.

“이 글을 보함하라” 하심은 이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잘 보관하라는 명령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 당시의 성도들을 위한 것일뿐더러 말세에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하리라” 하심은 이 예언들이 성취될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7년 대 환란 중 후반 3년반을 가리킨다(단7:25; 계13:5; 살후2:3).

다니엘 12장 10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심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떤 사람들은 환란과 시련을 통해 정결케 되고 그 예언을 이해 할 정도로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들 중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패역한 자들은 수욕을 받아서 영영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요 5:28-29).

▲이메일: Gpscenter@gmail.com (끝)

11장 전쟁의 이상은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상기

12장은 마지막 때 대환난과 주님의 재림 계시

안티오코스 4세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

246-221), 그는 북방왕인 셀류쿠스 2세(BC 246-226)를 물리쳤다. 톨레미 3세는 북방왕의 성(수리아의 안디옥)에 들어가서 수리아와 애굽의 우상들을 애굽으로 가지고 갔다. 이것들은 바사왕 캄비세스가 BC 525년에 애굽을 정복할 때에 약탈해간 것이었다.

그런 얼마 후에 셀류쿠스 2세는 애굽을 침공했으나 실패했다. 역사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10절에 나온 그 아들들을 보면, 셀류쿠스의 두 아들은 셀류쿠스 3세(BC 226-223)와 안티오코스 3세(BC 223-187)였다. 안티오 3세는 톨레미 4세(BC 221-203)의 군대를 물리쳤으나, 수년 후에는 톨레미 4세의 보복전쟁에서 패배하여 팔레스타인 남부의 라피아 요새에서 일만 명에 달하는 수리아 군사

계 참패를 당한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BC 187년경 그는 엘리아시스 지경의 한 이교 성전을 약탈하고자 시도했으나 전사당했다.

그 뒤를 이을 자도 보았다. 안티오코스 3세의 장자인 셀류쿠스 4세(BC 187-175)는 그의 재정 장관인 헬리오도로스로 하여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으나 헬리오도로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한 비천한 사람” 셀류쿠스 4세 필로 파토르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안티오코스 에 피파네스, BC 175-164) 그는 셀류쿠스 4세의 나이 어린 아들인 데메트리오스에게 계승될 왕권을 가로챘으며, 몇 차례에 걸쳐서 애굽 원정을 감행했다 그는 온갖 모략을 다 동원한 결과 그의 애굽 침공은 성공을 거두었다(25-28절).

하였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께 충성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자들을 남겨 두셨다(왕상19:18; 사6:13; 8:16).

비록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유다 마키비의 지도 아래 있었던 신실한 유대인들은 강력히 항거했으며 게릴라전을 펼쳤다. 이로 말미암아 안티오코스 4세는 지친 나머지 본국으로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봉헌했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인 수전절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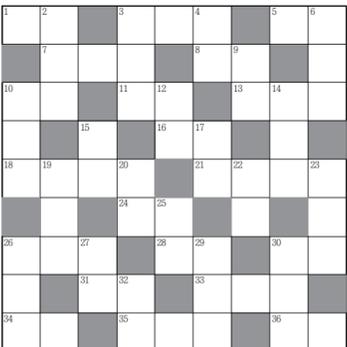
마지막 전쟁이 36절부터 45절 까지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본문은 안티오코스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때”(35, 40절)에 관한 예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때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가 멸망할 시점을 가리키며, 종말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무서운 환란의 때를 가리킨다(단9:27; 렘30:5-7; 계 13:5-8). 안티오코스 4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① 대환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한이레(단9:27) 동안에 이루어지는 대 환란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들이다 “환란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바 대 환란이 임할 것을 가리킨다(마24:21;

십자말 • Cross Word (103)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다리오 왕 때의 선지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학1:8).
3.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다(행10:15).
5. 갈렙의 딸.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그 딸을 주겠다고 함(사1:12).
7. 사람을 죽인 죄(민35:31).
8. 므낫세 사람 시미다의 아들(대상7:19).
10. 몹시 두려워 함(신28:20).
11. 논밭에서 거둔 곡식. 또는 그 수확량(막12:2).
13. 스마야의 아들(대상26:7).
16. 작하게 여기어 칭찬함(시104:34).
18. 바로 중앙(눅23:45).
21. 이구동성. 여러 사람이 다 같은 말을 함(왕상22:13).
24. 네 백성(겔28:19).
26. 헤브론에 사는 아나스의 아들(수15:14).
28. 식견이 좁아서 세상일을 전혀 모름(욥8:9).
30. 조개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구름(마13:45).
31. 서로 떨어진 거리(요21:8).
33.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34. 답신은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35. 제일 첫날(민7:12).
36. 손대지 아니한 거친 땅을 개척하여 처음으로 논 밭을 만들(사28:24).

<세로 푸는 열쇠>

2. 삼구과 나무의 열매인데 씹음하게 떠뿜한 뱀뱀이 남(창5).
3.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출25:19).
4. 둔, 바사의 금동(느7:71).
6. 지중해 동쪽 해안의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던 성읍(욥1:20).
9. 변역 사람이며, 여기고를 건축함(왕상16:34).
10. 속이 텅 빈. 공백(욥38:27).
12. 처녀가 시집을 갈래(1:3).
14. 예수께서 성령충만을 입어 이 날수동안 광야에서 보내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눅4:1).
15.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깨매다. 수선(수9:5).
17. 시체를 나르는 제구(삼하3:31).
19. 조용히. 살그머니(갈2:4).
20.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욥4:1).
22. 길을 떠나 감(잠18:11).
23.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25. 단답하고 딱딱한 격정스러움(욥1:18).
26. 이스라엘 왕 에라의 시종(왕상16:9).
27. 모든 물건의 드러난 현상(사33:6).
29. 주일마다(고전16:2).
30. 우리나라 전라도의 한 성에서 나는 유명한 토종견(삼사).
32. 제물을 들어서 제사를 드림(출29:28).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church.org</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ijhs.com</p>	<p>벤델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7:00 유치, 청년노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8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 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church.org</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6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ijhs.com</p>	<p>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스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성경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ij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원어예배: 오후 2:00 친년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c.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4. 사모의 사명가꾸기 (3)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매력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 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어릴 때의 환경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와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이새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친덕꾸러기로 자라서 양이나 치라고 목장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들의 경우를 보면 막내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데 다윗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도 양파를 당한 것 같습니다. 심부름으로 왔는데도 불구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고백할 당시에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그대로 목자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태도와 양들의 성질을 직접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의 약점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가 어떤 방법으로 양들을 돌보는지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익혔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경험의 고백이 바로 2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라는 고백은 가장 절실하고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환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루도 맘 놓고 밥을 쟤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적을 받을 때도 그렇고 암살자들에게 쫓길 때도 그랬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면서 이런 양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절절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을 다윗은 갖게 됩니다.

양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를 생각할 때면 목자인 다윗은 늘 물가로 인도하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는 팔팔 나오는 폭포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기질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양치는 과정 속에서 목자의 심정 경험하며 인간존재 확인

하고 푸대접을 받았고 형들이 군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동생 다윗은 형들에게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매력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그는 목자 되신 주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의 영성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맛보며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였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다른 외부의 조건은 하나도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여기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모가 멋있고 매력 있어 보이는 아들을 보는 순간 왕이 되기 위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회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외모가 그럴듯하게 잘 생긴 분들에게는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영성이 깊어도 외모가 받쳐 주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

다. 외모가 부다는 것은 아직 아동기의 때를 벗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에 사무엘은 처음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에 민감했기에 이새가 막내 다윗을 무시하고 데리고 오려고도 하지 않을 때 고감한 결단을 보입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금한다고 할 정도로 강경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런 결단을 본 이새는 마지못해 다윗을 부릅니다. 한창 양들을 치고 있던 다윗이 급하게 뛰어 오느라 세수도 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어느 부분이 그렇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성장과정도 볼 것 없고 내용을 만난 것 하나도 없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마음에 들었을까요?

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가는 두려워서 감히 접근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이런 양들의 기질을 잘 알기에 잔잔한 물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동침이 없는 아주 잔잔한 물가에만 적응할 줄 아는 양들이기에, 목자는 일부러 이런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였기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소생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도 잘 알았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삼키 아끼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떤 자신의 약점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위를 기대는 것만큼이나 마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하는 단어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바위, 피난처, 요새 등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치는 동안 양들에게서 인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마침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

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구는 다윗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며 실제로 되었기에 수 천년이 흘러간 오늘날에도 명곡의 가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 특별한 매력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삼상17:12-19)

이스라엘이 늘 깨어있지 않으니가 블레셋이 또 군대를 재정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아주 싸울 생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위기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축복으로 바꾸십

니다. 삼행제를 군대에 보낸 이새는 아들들의 상황도 알기위해 막내아들인 다윗을 보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잘 준비된 사람을 그 현장에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은 늘 평범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삼상17:20)

하나님께서 평범한 방법으로 준비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쓰임 받게 됨을 보게 합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은 늘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성터에 양식을 싣고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

찍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은 모습입니다. 내가 위험하고 내가 손해 본다 고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 것을 즐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삼상17:20-26)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전에 하던 일도 깨끗하게 잘 마감하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나라의 일꾼들은 늘 뒷사람을 생각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

다. 마음 씀씀이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세와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신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골리앗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면 왕의 큰 상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나라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준비된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피김으로 세우신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목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삼상17:26-30)

사울왕이 골리앗을 이길 승산이 없으니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상급(재물, 딸, 자유)을 준다고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

욕하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모든 성도의 특징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금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삼상17:31-37)

본문에서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성공하면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36절에 “내가 사자와 곰도 쳤다”고 말한 후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

톱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잘될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했다는 고백은 우리를 평생에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토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 익숙지 못하므로(삼상17:37-40)

다윗의 담대함에 사울왕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원래 입던 옷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맷돌만 들고 다섯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남들이 보기에 대단히 좋아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게 있는 것을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대단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그들은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505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estemna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201)342-9199, Fax: (201)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 11357 www.moakyang.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신앙공부: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 안침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p4us.org Tel: (516)333-1757, 목사님: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페인어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j.us/	에사랴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윈즈트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nyantlogch.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오후 1:30 영성성장공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dc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화)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12-89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nkc@gmail.com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투고칼럼

강승호 목사 (필라순복음중앙교회)



“개혁은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며

166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로 선포하여 기념한다. 개혁이란 변화를 의미하고 세상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과학, 의학, 예술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개혁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 중세 교회 때 독일의 신학자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본인 “루터”(1483-1546)는 인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다. 1350-1650년에 이르는 약 300년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문예부흥은 어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개혁으로 도약하는 변모가 시작되었다.

루터는 1546년 2월 자신이 태어난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예수세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29년 한 시대를 뒤흔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 묘지에 묻혀있다.

루터는 1505년 법률을 전공하다가 뜻을 바꾸어 수도원생 신앙생활을 한 뒤 신부가 되어 1511년 베텐베르크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중 “이신칭의”를 확립, ‘구원이란 외적이나 교회의 권위가 아닌 개인의 경건한 신앙을 주장하며 1517년 로마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 건립을 위해 면죄부 판매를 하는 등 카톨릭의 비 진리성과 부패에 항의하여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붙인 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다.

1520년 10월 교황은 60일내에 사과를 요구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요지부동이었던 루터는 1525년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 당하자 독일, 스위스에 신학자들이 루터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칼빈은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적나라하게 저술하였다. 그로부터 9개월 동안 바르트부르크 성당에 숨어 지내면서 1543년 신약 독일어를 완성

하여 독일 통일에 크게 공헌하였고 100권의 루터 전집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로마서 강의’ 등 다수의 역작이 있다.

개혁은 인간 삶의 영역에 다 해당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교회와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마5:15-16) 신자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마5:13-14) 무질서 속에 심기의 삶을 망각하는 현실을 보게 된다.

고국과 미국의 한인교회 실태만 보더라도 성도가 많던 적던 생명 바쳐 헌신하는 선량한 종들까지도 지탄 받게 하는 교회와 신자들 때문에 매도를 당하게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도 망각하는 것도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신학교는 우후죽순처럼 세워 소명도 사명도 없는 자들을 조속으로 가르쳐 목사직을 남발하니 저질 목사, 저질 신자들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다.

그 뿐인가? 교단과 교파는 콩나물시루처럼 세워 감투싸움에 급급하고 교회끼리 교인 포섭에 집착하고 교회 대형화에 혈안이 되고 예수 자랑보다 교회 구조 자랑에 몰두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모든 교회들이 초대 교회와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이년부터 선행하며 노력하는 운동이 확산 되었으면 한다(행2:44-47).

그 뿐인가? 직분자, 평신도 중에 철새처럼, 청개구리, 나홀로, 신비주의, 나팔꽃, 부영이, 벚꽃, 까마귀, 호마이카, 개미, 개미 같은 신자들, 상천하지에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이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무상한 초로인생, 1회적 인생사에 공수까지 일장춘몽인데 영생의 소망 속에 열매보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다. 착각 속에 빠져 주

제 파악도 못하고 명예욕, 이성욕, 물질욕에 포로가 되지 말고 목회자답게 성도답게 언행에 책임지는 삶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줄 알고(고전15:10) 언제나 겸손(살16:18, 빌2:5)의 삶속에 양심의 소리(하나님 말씀)를 듣고 행할 줄 알자(야2:10). 그리고 지, 정, 의, 신임을 정립하고 사회생활은 진, 선, 미를 추구하며 성령 받은 삶인 아홉 가지 열매(갈5:22-23마5:10,요15:5) 맺는 삶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계2:10).

- 성도의 7대 강령 1. 주일성수(출20:8-11) 2. 매일 성경읽기(행17:11) 3. 기도생활(살전5:17) 4. 온전한 십일조 생활(말3:10) 5. 전도하는 삶(딤후4:2) 6. 말은 일 중심(계2:10) 7.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자(벧전4:11).

- 목회자의 영성 10계명 1. 목회자는 윤리를 바로 갖자(종이요 머슴이다, 섬김과 겸손이다). 2. 기도 생활이다(마7:7고전4:20, 행1:8). 3. 설교 심자가 없는 설교는 허상이다(갈6:14, 마4:4). 4. 삼방은 필수다(마20:28, 렬48:10). 5. 교육이다(실력만 리더십, 보지 못하는 사람끼리 인도 할 수 없다)(마15:14). 6. 행정이다. 행정은 조직, 인사, 재무가 관건이다(고전14:40, 14:33). 7. 사랑이다(십자가 사랑이다)(요3:16, 고전13:13, 요13:34). 8. 체력이다(개미 같은 신자들, 상천하지에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이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무상한 초로인생, 1회적 인생사에 공수까지 일장춘몽인데 영생의 소망 속에 열매보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다. 착각 속에 빠져 주

“아빠가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이 좋다!”

WSJ, 아동성장기에 ‘아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보도

오하이오 주 켄트스태이트 대학의 캐스린 컨스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30명의 청소년 및 아동이 부모에 대해 얘기하도록 했다. 컨스 교수 연구진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표준 척도에서 이 아이들의 아빠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컨스 교수에 따르면 연구대상이 된 아이들은 아빠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훈훈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격려한다”거나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컨스 교수는 아빠의 육아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최근 자신이 발표한 연구에서 두 가지 평가 내용을 수정했다(부모가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지에 관한 질문을 추가한 것). 그러자 아빠의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컨스는 ‘아빠 효과’(father factor)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새로운 테스트와 기법을 고안한 연구자 중 하나다. 지난 2년간 발표된 수십 건의 연구는 아빠들이 자녀와 마구잡이식으로 놀아주거나 때로는 유치하게 놀아주는 육아의 미묘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윌스트리트저널”은 아빠가 놀아주면서 자녀를 흥분시키거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때 아이가 행복하고 재미있게 즐기면 한다면 엄마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시사한다. 또 아빠는 때때로 장난을 치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신체 놀이를 통해 자녀가 양탈을 부리거나 우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다(Moms, Let Dad Be Dad: That goofy teasing and hyper play actually help young children develop, according to new research).

어릴 때 부모와 끈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자녀의 능력을 통해 정서 교우 관계와 사회성, 이성 관계의 수준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탐구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자녀가 곤경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분석하는데 사용된 많은 평가 기준은 아직까지 탐구와 위험 감수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아빠의 역할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한 연구에서는 어떤 미취학 아동이 피곤해져서 울기 시작했을 때 아빠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물구나무를 세워주었다. 또 다른 아빠는 아이가 병원에서 장난감을 이용해 주사로 팔

웃게 하거나 탐구해보도록 격려해 아이를 흥분시키는 경향이 더 높았다.

보통 연구진이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는 대부분 엄마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아이를 달래고 편안하게 해주는 행위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큰 효과를

자들이 이 같은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녀는 “아빠와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건 참견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빠의 친근함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 한 가지는 ‘아이 웃기기 과제’다. 이 방법의 경우, 장난감이 없는 실험실에 2분 이상 부모와 자녀가 남겨지고 자녀를 웃겨야 하는 과제가 부모에게 주어진다. 한 아빠는 바닥에 깔린 양탄



아빠는 자녀를 흥분시키거나 도전의식 불러일으켜 과격하게 놀며 세심함, 정서적 친밀감 유지능력이 부성에 최고 특징

을 찌르는 시늉을 했을 때 “앗 따귀 위!”라고 아픈 척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아이의 관심을 유발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가 되면 호르몬 반응을 보인다. 이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증가로도 나타난다.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촉진하는 신경 펩티드다.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은 초보 아빠와 엄마의 서로 다른 뇌 영역의 반응과 연관돼 있다.

여성의 경우, 옥시토신은 편도체와 감정 표현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 호르몬이 계획 수립 및 정신화(마음 헤아리기)와 연관된 대뇌 피질 영역의 활동 증가와 관련이 있다.

초보 부모는 애착 행위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생후 5개월 된 유아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100명의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엄마들은 아기와 눈을 맞추고, 웅얼이를 따라하고 사랑스럽게 아기를 쓰다듬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아빠는 빠른 동작을 통해 아기를

발휘한다(여성들 가운데서 이 같은 행위가 보다 흔히 나타난다).

매릴랜드대학의 나타샤 카브레라 인간발달학 교수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아빠를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빠가 보다 장시간 일하고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적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카브레라 교수는 연구에 참여할 용의가 있는 아빠 50명을 구하는데 3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훌륭한 양육의 기준이 항상 엄마와 아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많은 척도들은 ‘참견’ 또는 강요(아이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게임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대신 골라주는 것 등)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엄마가 참견할 때 자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빠가 게임할 때는 아이들이 그다지 불만을 갖지 않는다”고 카브레라 교수는 말했다. 연구

자를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에 찢다고 장 프랑소와즈 뷰로 오타와대 심리학 부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7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웃기기 과제’를 이용해 실시된 이 연구를 주도했다. 다른 아빠들은 방 주위를 돌면서 아이를 뿔뿔히 웃게끔 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보다 아빠와 놀 때 아이들은 더 흥분했고 다채로운 감정을 보여주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신이 흥분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과격하게 놀아주면서 아이의 기분을 헤아리는 세심함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의 부성을 보여주는 특징”일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른 아빠들은 괴물 목소리를 흉내 내 자녀들을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녀와 놀아주면서 세심하게 기분을 헤아리지 않는 아빠는 아이의 애착 형성 능력을 저해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1st United Preaching Festival of Theological Seminaries in Southern California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설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7일 (토), 오전 9:00 ~ 오후 12:30

장소: 나성영락교회 본당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 Tel. 323-227-1400)

- 주최 7개 (신학) 대학교 국제개혁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미성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에반젤리아복음대학교, 웰드미션대학교 (가나다 순)
- 주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참가대상 인준받은 학교의 신학생들 (현재 M.Div., M.A. 과정 등록 학생)로 신학교 자체 설교대회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
- 본문 빌립보서 3장 10-16절
- 심사기준 (1) 전달력과 열정, (2) 정확한 본문 주해, (3) 설교 구성 (시간 엄수 포함), (4) 삶과 교회 현장의 적용성 / 각 25점
- 기타 설교 페스티벌 후 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10 상당의 대회 기념 로고가 새겨진 USB와 함께 점심이 제공됩니다.
- 문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무처장 구경모 교수 (Tel. 562-926-1023, Ext. 303 / kmkoo@ptsa.edu)

- 상과상금 대상 (John Chrysostom 상) \$3,000 설교상 \$2,000 주해상 \$2,000 커뮤니케이션상 \$1,000 참가상 등외 3명의 학생에게 각 \$300
- 심사위원 고승희 목사, 김병학 교수, 김신호 교수, 김은철 교수, 류시하 교수, 정성환 교수, 이경원 교수, 한기원 교수 (가나다 순)
- 후원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 남가주교회협의회 &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 누가대학교 (설립자 김영대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 미주서부장로교회 (김선익 목사), 복음사 (주정욱 사모),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생명의말씀사 (전인철 목사),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오픈지카운티교회협의회 (김기동 목사), 이학진 장로 (썩난 지팡이 성경 통독 사역원), 주님의빛교회 (주혁로 목사), 최문환 장로 (월드미션대학교 이사장), 충현선교교회 (민중기 목사), 한양장로교회 (강일준 목사), Green M. Wild (Eric Kim 사장)
- 협찬 CTS, 국민일보, 기독교뉴스, 기독교일보, 뉴스앤조이, 미주복음방송, 미주크리스천신문, 우리복음방송,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찬비전, 크리스찬위클리, 크리스찬헤럴드 & TV